

東海 趙琮鎭의 關北 紀行과 『東海北遊錄』 연구

李 焄*

<目次>

- | | |
|-----------------------|-----------------|
| I. 서론 | III. 관북 기행의 시세계 |
| II. 관북 기행과 『동해북유록』 저술 | IV. 결론 |

<국문 초록>

본고는 동해 조종진이 北評事의 신분으로 관북 지역을 기행하고 남긴 『東海北遊錄』을 통해 관북 기행과 『동해북유록』 저술의 의의 및 관북 기행의 시세계를 고찰하였다.

동해는 관북 지역과 깊은 인연이 있는 자신의 가문 이력을 ‘北遊의 世家’라 지칭하고, 북평사라는 직책을 대대로 물려받는 가업으로서의 ‘疇官’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동해는 북평사에 임명된 것을 관직은 낮지만 ‘淸宦’으로 인식하여 명예롭게 여겼고, 遠遊를 통한 豪放한 기상의 배양과 표출을 기대하면서 관북 지역을 순회하는 동안 북평사의 임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피력하였다.

북평사로서의 동해는 兵馬節度使를 보좌하는 일반적인 임무 외에도 開市 감독 및 教養官을 겸하여 상업의 유통을 살피고, 지역 유생의 교육과 文武科의 試材 및 과거를 주관하였기 때문에 관북 지역의 전체적인 실상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체험은 동해로 하여금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을 떠나서 직접 체험한 관북 지역의 실상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였고, 그 결과 여러 시문들을 정리하여 『동해북유록』을 저술하였다.

* 강원대학교 강사 / lh8329@hanmail.net

한편, 동해는 공자의 ‘述而不作’과 사마천의 ‘實錄’이라는 저술태도를 전범으로 삼아, 관북 지역의 실상을 文으로 형상화하여 천지자연의 道를 조화시킨다는 載道論的 문학관을 바탕으로 『동해북유록』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동해는 자신의 『동해북유록』에 대해 ‘臥遊의 자료’로 삼는다는 개인적인 효용성과 관북 지역에 대한 소개서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효용성을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동해는 당대에 있어 관북 지역을 이역시하고 그 지역 민을 타자로 바라보는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전환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관북 지역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는데, 이러한 점이 『동해북유록』이 지닌 의의라 할 것이다.

동해의 관북 기행시는 첫째로 가업의 계승과 왕실 사적의 찬양, 둘째 관북 지역인과의 교류 및 文教 진흥, 셋째 관북의 생활상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 넷째 遠遊를 통한 豪放한 기상의 배양과 표출 등의 면에서 그 시세계의 내용과 문학적 특징을 지닌다.

【주제어】 關北, 北評事, 東海北遊錄, 載道論的 문학관, 豪放

I. 서론

東海 趙琮鎮(1767-1845, 본관 豐壤, 字 章之, 號 玄溪·藝垣·東海)에 대한 기존 연구는 생애 및 교유관계¹⁾, 산문과 서법을 통한 문학론 연구 등 그 일부분만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조종진의 문학론은 秦漢古文을 통한 옛 성현의 참된 진리의 획득과 이를 위한 방법으로서의 산수유람 중시, 이에 대한 효과로서의 議論 중심의 遊記 구성과 實이 담긴 載

1) 尹智勳의 「東海 趙琮鎮의 散文에 대한 일고찰」(성균관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에 의해 생애와 교유관계의 일부가 밝혀졌고, 최근에 와서는 西陂 柳僖(1773-1837)의 교유관계에 있어 조종진이 거론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김근태의 「西陂 柳僖의 생애와 學詩 門路」(『온지논총』 14집, 온지학회, 2006.)와 심경호의 「유희의 시문 문집과 그 정신세계」(『진주유씨 서파유희 전서Ⅱ』, 한국학중앙연구원, 2008.) 참조.

道論的 문학관이라는 결론²⁾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문학론의 핵심으로 氣의 배양과 天機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라는 두 가지 축이 거론되었다.³⁾ 이들 연구의 성과는 동해의 시문학을 고찰함에 있어 방향을 제시해 주고는 있지만, 산문과 서법을 위주로 한 문학론을 고찰하였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특히 시에 대한 인식 측면에 있어서 이론화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된다.

동해는 평생을 통해 전국 각지를 유람하였고, 『東海公遺稿』⁴⁾에 상당한 양의 기행시를 남겼다. 그는 1805년(39세) 別試에 급제하기 이전에 嶺南·湖海·開城 지역을 기행하고 각 명승고적을 소재로 한시를 지었다.⁵⁾ 과거급제 후에는 관직을 제수받기 전에 금강산(1차)을 기행⁶⁾하였으며, 修撰校理를 거쳐⁷⁾ 1810년 가을부터 1811년 봄까지 北評事를 역임하여 금강산(2차)과 關北 지역을 기행하고 『東海北遊錄』을 저술하였다.⁸⁾ 이어 그는 應教·別兼春秋·執義 등을 거치는데⁹⁾, 1817년(51세)에는 청

- 2) 윤지훈, 위의 논문, pp.25-33. 이 논문은 조종진이 1810년(44세) 評事의 신분으로 관북 지역을 순회하면서 남긴 『東海北遊錄』과 1824년(58세)부터 8년간 정주목사로 재직할 때 ‘홍경래의 난’으로 순절한 6명의 인물을 立傳한 「六忠義傳」을 중심으로 한 산문에 대한 고찰이다.
- 3) 崔有鎭, 「養氣의 측면에서 본 東海 趙琮鎮의 서법이론과 문학론」, 『漢文古典研究』 第18輯, 韓國漢文古典學會, 2009, pp.154-155.
- 4) 이하 『유고』라고 칭한다. 『東海公遺稿』의 서지사항에 대해서는 최유진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 5) 1797년(丁巳, 31세) : 경기도 과천·화성·안성·용인·광주, 충청북도 진천·청주·충주와 속리산, 경상북도 상주·선산·군위·영천·경주·청도·예천·문경, 울산, 부산, 경상남도 김해·양산·밀양 등 기행. 「東南遊錄」 저술. / 1803년(癸亥, 37세) : 湖海 지역(평택·아산·보령·태안) 기행. / 1805년(乙丑, 39세) : 개성 지역 기행.
- 6) 1806년(丙寅, 40세) : 3월 금강산 1차 기행, 9월 여주·양주 기행.
- 7) 『유고』 8책, 「副校理鄭元容修撰趙聯名上疏」, 「辭教理疏(己巳(1809)十二月二十六日)」.
- 8) 『유고』 9책, 「東海北遊錄六編各序 并繫錄詩文(庚午杪秋行 辛未季春還)」.
- 9) 『유고』 8책, 「應教入直乞暇疏(甲戌(1814)四月二十一日)」, 「辭別兼春秋疏(丁丑(1817)四月十六日)」, 「辭執義疏(己卯(1819)五月十四日)」.

풍·단양·영춘·제천·영월·원주·여주 등의 지역을 기행하고 지은 시문을 「遊四郡帖」으로 엮었다.¹⁰⁾ 1818년(52세)에는 「正宗御製景慕宮睿製」를 오대산 사고에 봉안하고 曝曬官을 겸한 신분으로 오대산과 관동 지역 및 금강산(3차)을 기행하고 「五臺山史庫行紀」를 저술하였다.¹¹⁾ 1821년에는 淮陽縣監으로 부임하여 1822년(56세)에 금강산(4차)을 기행하고 지은 시문을 「歇惺帖」으로 엮었다.¹²⁾ 1824년(58세) 左承旨에 임명되었다가 定州牧使로 좌천되는데, 이 기간에 홍경래의 난으로 순절한 14명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들의 행장을 지었으며, 14명 중 공적이 뛰어난 6명을 뽑아 「六忠義傳」을 저술하였다.¹³⁾ 또한 평안도 지역을 기행하고 지은 시문을 「西環帖」으로 엮었다.¹⁴⁾ 이후 그는 1832년(66세) 右承旨에 오르는 것으로 사환의 길을 마감한다.

이처럼 동해 조종진은 일생 동안 전국 각지를 유람하였는데¹⁵⁾, 단순한 유람에서 그치지 않고 각 지역의 風俗과 景物 및 人物 등을 시문으로 읊기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로써 본다면 그의 일생을 紀行의 일생

10) 『유고』 10책, 「遊四郡帖曰九題抄」.

11) 윤지훈은 “현재 문집에는 그 서문만 남아 있다.”고 하였으나(앞의 논문, p.9),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대략 63首의 시가 문집에 실려 있다. 다만 이때의 작품은 그 시체에 따라 여러 책에 분산되어 실려 있어, 대상 작품을 뽑아내기에 다소 번잡하다.

12) 『유고』 8책, 「歇惺帖」, “歲壬午(1822)閏三月初六日 東海翁扶病 登歇惺樓 卽莅邑之翌年奇春也……”.

13) 윤지훈, 앞의 논문, p.10.

14) 『유고』 8책, 「西環帖」.

15) “……故遊東萊遊金剛而名其錄 曰金剛 曰東萊 遊湖南曰湖南錄 遊湖右曰湖右錄 今復遊東海仍抵北海 故曰東海北遊錄……”(『유고』 9책, 「東海北遊錄六編各序 并槩錄詩文」)과 “……且性喜山水 早事遊歷 湖南之天柱蛟龍 湖西之錦屏三年……”(『유고』 10책, 「與李璽如論文書」)을 통해 전라도 지역을 기행하고 시문을 지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남원의 두곡서원에 배향된 고려후기 충신인 金沖漢(?-?)과 그의 후손으로 정유재란 때 남원을 지키다가 전사하여 남원의 충렬사에 배향된 金敬老(?-1597) 등 그 가문의 충신·열녀·효자들의 사실을 기록한 「金氏三剛序」(『유고』 11책)를 제외하고는 다른 작품들은 문집에 보이지 않는다.

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한 연구가 선행 연구에서 고찰된 문학론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일차적으로 동해의 금강산 기행시를 대상으로 그 일면을 살폈었다.¹⁶⁾ 본고는 그 후속으로 동해가 北評事의 신분으로 관북 지역을 기행하고 남긴 『동해북유록』을 통해 관북 기행과 『동해북유록』 저술의 의의 및 관북 기행의 시세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관북 기행과 『동해북유록』 저술

1. 관북 기행의 배경과 북평사에 대한 인식

동해 조종진은 1810년(순조 10) 8월 병조판서 金履度(1750-1813)의 추천으로 북평사로 임명되었고, 8월 24일 출발하여 1811년 3월에 돌아왔다.¹⁷⁾ 동해의 관북¹⁸⁾ 기행의 배경에는 이러한 외적 요인 이외에도 그가 기행을 중시했던 내적 요인도 작용하였다. 동해가 평소 기행을 중시했던 이면에는 스스로가 산수를 좋아했던 이유도 있었지만, 장인이었던 兪漢謨(1734-1816)¹⁹⁾의 “산천의 영기를 모아야 한다.”²⁰⁾는 훈도에도 영향

16) 줄고, 「東海 趙琮鎮의 금강산 漢詩 연구」, 『江原文化研究』 第28輯, 江原文化研究所, 2009. 총 4차에 걸친 동해의 금강산 기행과 시 창작은 그의 시론과 산수 유람관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의 금강산 한시의 특징은 淸眞의 추구, 호방한 기상 표출, 산수 유람에 대한 욕구와 현실과의 갈등, 애민 의식의 발로 등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17) 『유고』 2책, 「聖上十年庚午八月癸巳 兵判金履度政首擬北評事受點 十九日肅謝 二十三日下直 翌日發行 翰苑新舊僚贈別 感賦一首」와 『유고』 9책, 「東海北遊錄六編各序 并樂錄詩文(庚午杪秋行 辛未季春還)」 참조.

18) 일반적으로 강원도 회양군과 함경도 안변군의 경계에 있는 鐵嶺을 기준으로 방향에 따라 關東·關西·關北 지방으로 구분하는데, 관북이라 하면 함경도를 의미한다. 또한 함경도는 摩天嶺을 경계로 남쪽을 南關, 북쪽을 北關이라 한다. 동해 조종진이 함경도 지역을 기행하고 지은 시문에서는 ‘관북’이란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를 그대로 사용한다.

을 받았다. 또한 동해의 가문이 지닌 이력은 그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기행의 세계로 이끌게 하였다.

우리 가문은 북유의 세가이다. 증조부 죽천공[趙最壽]은 숙종 말년에 영남에 제수되었다가 다시 북평사가 되어 십주를 복심하고 서수라에 이르렀으니, 남북을 왕래한 날은 삼백여일이었고 왕래한 거리는 구천여 리였다. 공의 유집을 살펴보니, “증조부 찬성공[趙希輔]이 만력 을사년(1605)에 감진어사로 관북에 와서 머물며 백성을 구제한 공이 매우 많았다.”고 하였다. 지금 이백여 년이 지났지만 부모들은 아직도 그 때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한 일을 전하여 말하고 있다. 큰할아버지 정간공[趙遠命]은 원릉(영조) 초에 관찰사로 함흥에 부임하여 북방 끝까지 순시하였고, 생조부[趙翼命]는 이조정랑으로 병마평사가 되었는데, 대간에서 인질(引疾)하여 서경(署經)하지 않으니 원수의 막하에서 다시 시강관으로 소환되어 돌아왔다. 지금 내가 북방으로 오니 거의 주관(疇官)인 것이다.²¹⁾

동해의 가문은 6대조인 趙希輔(1553-1622, 字 伯益)가 1605년(선조38) 북방에 흉년이 들자 監賑御史로 파견되어 진흥활동에 공을 세웠고, 증조부인 趙最壽(1670-1739, 字 季良, 號 竹泉)는 숙종 말년에 북평사를 역임하였다. 그리고 큰할아버지인 趙遠命(1675-1749, 字 致卿)은 영조 초에 함경도 관찰사를 역임하였고, 생조부²²⁾인 趙翼命(1677-1744, 字 士弼)도

19) 유한모의 생몰연대는 필자가 「外舅判書俞公墓誌銘(並序)」(『유고』 10책, p.124.)과 「刑曹判書俞公行狀」(『유고』 10책, p.140.)을 참조하여 설정하였다.

20) 「嗜字詩四首」中 其四(『유고』 8책), “岳翁垂化爲我贈, 瓊章三四抵玉椀. 上言山川英氣鍾, 中言前庭青草滿. 終言愛君文字積, 靈犀留照薇露盥.” : 1837년(71세)

21) 『유고』 9책, 「題鐘城三衙」, “吾家北遊世也 曾王考竹泉公 在肅廟季年 奉使嶺南 還拜北評事 仍覆審列州抵西水羅 往來南北爲日三百有餘 里九千有餘 謹按公遺集曰 曾考贊成公 在萬曆乙巳歲 以監賑御史 來駐北路 濟活甚多云 于今二百餘年父老尚有以當時活萬人傳說焉 伯祖貞簡公在元陵初 按節咸興巡于北極 生王考以吏部郎北評兵馬 引疾未署 元帥幕旋以待講官被召而還 今不肖北來殆疇官也……”

22) 동해의 父는 趙時正(1733-1800)이고, 조시정은 生父가 조익명인데, 趙禧命(1699-1767)의 아들로 출계했다. 조원명은 조익명의 형으로 동해에게는 伯祖가 된다. 한편 조원명과 조익명의 아버지인 趙祺壽는 宗室 麟坪大君(1622-1658,

북평사를 역임하였다. 따라서 동해는 관북 지역과 깊은 인연이 있는 가문의 이력을 ‘北遊의 世家’라 지칭하고, 북평사라는 직책을 대대로 물려받는 가업으로서의 ‘疇官’으로 인식한 것이다. 동해 자신도 “관북으로 벼슬살이 가는 것이 평소의 뜻이었다.”²³⁾라고 하였는데, 가문의 이력과 소신을 통해 북평사로 부임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당대에 북평사라는 직책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평사라는 직책은 세조 원년(1455)에 도사라 불렸고, 13년 정해년(1467)에 이르러 평사라 고쳐 불렸다. 검평사 또는 검쇄환입거존무어사라고도 하였다. 사이에 잠시 혁파했다가 현종 갑진년(1664)에 이르러 다시 평사를 설치하였다. 이른바 평사는 평북도병마사이다. 그래서 병마평사라고 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그 임명을 중히 여겨 준망한 명사가 아니면 흑시라도 허락하지 않았다. 처음엔 북병사의 막부종사 겸 감시어사였는데 별도로 봉사의 인을 더하여 북관과 남관의 병영을 순시하며 경중에 따라 권관(權官 : 변경의 작은 鎭堡에 속한 중9품의 무관)을 경질하였다. 품계는 낮으나 청환(淸宦)이고, 먼 곳을 유람하면서 마음을 확 트이게 한다. 후에 사대부들이 원유를 바라지 않고 부귀영화만을 바라고, 더군다나 점점 싫어하고 박대하는 자리가 되어 해가 거듭될수록 혼탁해지니, 나와 같은 자가 차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비록 그 직책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또한 원했던 것이었는데, 사람들은 내가 유람에 고질병이 있다고 기롱하였다. 준상한 명사와 호기로운 청년 중에 산하에서 내달리는 것을 탐하고 기생의 가무를 즐기는 자들은 많지만, 병마평사로서 그러한 자는 칠십년 이래로 들어 보질 못했다.²⁴⁾

이름 潛, 자 用涵, 호 松溪, 시호 忠敬의 사위이다. 따라서 동해가 정조로부터 이름을 하사받아 ‘冕鑣’에서 ‘琮鑣’으로 개명하고 字도 ‘和之’에서 ‘章之’로 바꾼 배경에는 종실과의 인척관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 23) 『유고』 9책, 「東海北遊錄六編各序 并槩錄詩文(庚午杪秋行 辛未季春還)」 其六, “東海宦遊于北素志也…….”
- 24) 『유고』 9책, 「評事」, “評事之職 在世祖朝元年稱都事 至十三年丁亥更稱評事 或兼評事或爲兼刷還入居存撫御史 間纔革罷 至顯廟甲辰旋設評事 所謂評事評北道兵馬事 故曰兵馬評事 古者重其遴 非峻望名士未之或與焉 始爲北兵使幕府從事兼監市御史 別加奉使之印 互關巡兵營 輕重迭權官 秩卑而淸宦 遊遠而

원래 都事로 불렸던 북평사는 ‘評北道兵馬事’의 약칭으로, 흔히 評事, 兵馬評事라고 하였다. 북평사는 정6품의 外官職으로서, 함경도와 평안도에 각 1명씩 총 2명을 파견하여 종2품 무관직인 兵馬節度使²⁵⁾ 밑에 있었다. 1455년(세조 원년)에 북평사를 처음으로 설치하였는데, 1637년(인조 15)에 혁파하였다가 1664년(현종 5)에 다시 설치하였다. 초기에는 승문원의 參下(문무7품 이하의 관원)를 6품으로 승진시켜 임명하였다가 대부분이 臺官(司憲府의 大司憲 이하 持平까지의 벼슬. 여기서는 정5품의 持平을 말함)으로 부름을 받아 조정에 돌아왔다.²⁶⁾ 따라서 초기의 북평사는 일종의 승진할 수 있는 관직이었고, 학문과 문벌을 갖춘 인물에 한하여 임명하였다. 그러나 북평사를 다시 설치한 1664년 이후로는 홍문관의 관원이나 吏曹의 正郎(정5품) 중에서 북평사를 임명하였다.²⁷⁾ 이로 인해 정5품인 홍문관의 校理나 이조의 정랑이 북평사로 임명되면 정6품으로 강등되는 것이어서 대다수의 관리들은 북평사에 임명되는 것을 꺼려하였다.

위의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북평사의 관직 典故·임명 기준·임무·북평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통해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다. 동해는 북평사에 임명된 것을 관직은 낮지만 ‘清宦’으로 인식하여 명예롭게 여

敵 後之士大夫不慕遠遊慕映 況漸爲厭薄之窠 滯猥歲加 至如不佞玷焉 雖非求之 亦其願耳 人有譏余以苦癖乎遊覽也 其俊爽名士豪華少年耽山河之馳驟娛粉黛之歌舞者居多 而其評兵馬事者七十年來未之聞焉……”

25) 兵馬節度使 : 함경도는 3명인데, 하나는 관찰사가 겸하고, 하나는 南兵使로 세조 병술년(1466)에 처음 두고 北靑에 영문을 개설하였다. 하나는 北兵使로, 정종 2년(1400)에 처음 두었고, 영문을 鏡城에 개설하였다. 태종 갑신년(1404)에 고쳐서 都兵馬使로 하였다가 세종 병진년(1436)에 고쳐서 병마절도사로 하였다. 세조 정해년(1467)에 고쳐서 북도절도사 겸 수군절도사로 하고, 府使를 겸하게 하였다.(『燃藜室記述』別集 卷8, 官職典故, 兵馬節度使 참조.)

26) 『燃藜室記述』別集 卷8, 官職典故, 兵馬評使 참조.

27) 위의 주 참조.

졌다. 그리고 “먼 곳을 유람하면서 마음을 확 트이게 한다.[遊遠而敞]”고 하여 遠遊를 통한 호방한 기상의 배양을 기대하는 한편, 사람들이 기롱하는 것처럼 산수 유람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북평사의 임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음도 피력하고 있다. 동해도 언급하고 있듯이, 북평사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병마절도사를 보좌하여 함경도의 병영을 순시하고 開示를 감독하는 것이었다. 한편 북평사는 教養官을 겸하여 관북 지역의 文教를 담당하였다.

유자가 시독학사로 평사가 되었다. 평북도병마는 개시어사를 겸하고, 또 십주의 교양관을 겸한다. 이러한 모든 직책은 학사로서 번번이 임명되니, 그 직책이 어찌 지극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하찮게 보며 직책을 맡은 자도 싫어한다. 싫어하는 것은 먼 변방이고 사납고 차가운 풍기 때문이며, 봉급 없이 짐을 꾸려야 하고 비와 눈 내릴 때 갔다가 버드나무 싹트는 봄에 오기 때문이다. 하찮게 보는 것은 학사가 강등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 도호부사가 아니고 변방 장수가 아니더라도 하찮게 보는 것과 싫어하는 것은 또한 비슷할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나는 일찍이 이 관직을 역임했었는데 사헌부와 홍문관에서 숙직하는 것과 비교하면 창광하고 쾌활하다 할 것이다.²⁸⁾

이 글은 동해가 북평사를 역임한 후 1814년 應敎(정4품)로 있으면서 兪應煥(1763-?)이 북평사로 부임할 때 써 준 글이다. 당대에 북평사를 폄하하는 인식과 그 이유가 앞선 글보다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동해는 북평사가 지닌 임무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교양관을 겸하는 직책의 중요성과 직책을 수행하면서 ‘창광’하고 ‘쾌활’한 기상을 얻을 수 있는 효용성을 피력하며 북평사로 부임하는 유응환을 격려하고 있다.

教養官은 지방의 유생을 가르치기 위해 둔 벼슬로서, 함경도는 함경

28) 『유고』 8책, 「送兪評事序(甲戌:1814)」, “兪子以侍讀學士爲評事 評北道兵馬兼開市御史 又兼十州教養官 此皆其職以學士輒補 其職不其綦重矣乎 然今之人 冗視 而當之者厭之 其厭也 關塞之遼遠也 風氣之凜寒也 無俸錢以治行李也 雨雪往而楊柳來也 其冗視也 視學士似貶也 非都護使 非邊將也 冗之厭之亦似矣乎 雖然余曾爲是官矣 視蘭臺瀛館之直 爲敞曠快活矣……”.

감사 閔鼎重(1628-1692)의 건의로 1666년(현종 7) 회령과 경원에 교양관을 두었다.²⁹⁾ 그 뒤 교양관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1682년(숙종 8)에 우의정 金錫胄(1634-1684)의 건의로 북도의 교양관을 폐지하고 북평사로 하여금 임무를 겸하게 하였다.³⁰⁾ 따라서 북평사는 명망 높고 문학에 뛰어난 이가 아니면 임명되지 못하였으며, 실제로 16-18세기 북평사를 역임한 이들은 대부분 당대 조선 문단을 대표하는 일류 문인들이었다.³¹⁾

이러한 사실은 북평사를 폄하하는 당대의 인식과는 달리 동해가 북평사라는 직책에 상당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지니게 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동해 자신도 관북 지역 및 북평사와 깊은 인연이 있는 가문의 이력을 통해 북평사로서 관북 지역을 순회하는 동안에 막중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견지하였다. 아울러 동해는 기행을 중시했던 개인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관북 기행을 遠遊를 통해 호방한 기상을 배양하는 기회로 삼았는데, 이는 동해가 교유하였던 柳僖(1773-1837)가 북평사로 부임하는 동해를 위해 써준 「送趙評事琮鎮赴關北序」에서도 드러난다. 유희는 “동해에 조개가 있는데 스스로 먹을 수가 없었다. 항상 작은 게를 머금고 있다가 배가 고프면 게를 놓아 먹이를 취해서 돌아오도록 하였고, 조개는 그 때문에 배부를 수 있었다.”라는 우언을 인용하면서, 동해의 기호가 자신과 맞으니 동해가 관북 지역을 기행하고 지은 시는 자신의 기운을 호탕하게 해 줄 것이라고 하였다.³²⁾

29) 『현종개수실록』 15권, 현종 7년(丙午) 5월5일(乙酉), 3번째 기사 참조.

30) 『숙종실록』 13권, 숙종 8년(壬戌) 7월 12일(丁巳), 2번째 기사 참조.

31) 장유승, 「조선 후기 서북 지역 문인 집단의 성격」, 『진단학보』 101, 진단학회, 2006, p.401.

16~18세기 문단을 대표하는 문인들 중에 북평사를 거친 이들은 朴閔, 崔慶昌, 林悌, 李安訥, 李植, 鄭斗卿, 李敏求, 李端夏, 金昌協, 朴世堂, 申靖夏, 崔昌大 등이 있다. (장유승, 「수색 허적의 의고적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8, 태학사, 2003, p.276. 참조.)

32) 柳僖, 『文通·方便子文錄』 卷18, “……東海有蛤 不能自食 常含小蟹 飢則放蟹 使之取食而還 而蛤爲之飽 僕之倦於世 已久 雖平日痼癖之遊觀 亦復廢焉 處士之爲海蛤 甚矣 且放章之而使之仕 章之嗜 旣與吾素合 則其觀而樂之

2. 관북 지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동해북유록』 저술의 의의

앞서 인용한 글에서 동해의 언급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조선 후기의 관북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즉, 이질적인 변방으로서 문화·교육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기후는 춥고 풍속은 사납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해 자신은 관북 지역을 周나라 건국의 발상지와 漢나라 건국의 발상지로 비유하여 ‘漆沮’와 ‘豊沛’의 고향으로 부르면서, 풍속이 소박하고 인정은 두터우며 근검하다고 인식하였다.³³⁾ 이것은 동해가 북평사로 부임하는 것을 ‘북유의 세가’인 가문의 이력을 통해 가업으로서의 ‘주관’으로 인식한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角聲遠逐豆江浮	두만강 따라 멀리 빨피리 소리 울려 퍼지는데,
百轉千廻出孔州	백번 천번 돌고 돌아 공주를 벗어났네.
白雪鵬盤天北極	흰 눈 사이로 수리가 하늘 북쪽 끝에서 선회하고,
紫雲龍曳海東頭	자줏빛 구름 속으로 용이 바다 동쪽 가에 드리웠네.
長風萬里翻脩旆	만리에 부는 먼 바람이 긴 깃발을 펼럭이지만,
暖日三冬却弊裘	한겨울인데도 날이 따뜻해 해진 겹옷 벗었네.
山水曾從家稿見	산수경관을 일찍이 증조부님 시에서 보았는데,
祗今榆塞拭青眸	지금 북쪽 변방에 오니 푸른 눈을 비비게 하네. ³⁴⁾

이 시는 경흥에서 증조부인 조취수의 시에 차운한 것이다. 함경북도 경흥(현 은덕)은 두만강에 인접한 국경 도시로서 예로부터 국방의 요충지였다. 2구의 孔州는 경원(현 새별군)의 옛 지명으로 匡州라고도 하였다.³⁵⁾ 수련에서는 호각소리 울려 퍼지는 두만강을 따라 경원을 벗어나

賦而形之 詩固足以怡吾情而宕吾氣……”

33) 『유고』 8책, 「送俞評事序(甲戌:1814)」, “……況乎關北漆沮豊沛之鄉也 樸厚之風勤儉之俗 猶有可觀 尤不宜貶視而忽之也……”

34) 『유고』 1책, 「題慶興館敬次曾王考竹泉公舊題韻」.

35)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VI, 경인문화사, 1978(삼판), p.288.

경흥에 도착하는 험난한 노정을, 함련에서는 경흥의 이국적인 경관을 낯설음이나 이질감 없이 담담한 필치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경련에서는 춥고 황량할 줄 알았던 변방의 날씨가 도리어 그렇지 않은 실상을 별반 놀라움 없이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해의 인식은 미련에서 확인된다. 미련의 ‘榆塞’는 중국 ‘山海關’의 별칭이며, 변세시에 흔히 등장하는 시어로서 일반적으로 북쪽 변방을 가리킨다. ‘靑眸’는 쯤나라 阮籍의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반가워하는 눈빛을 말한다. 따라서 미련에서는 증조부의 시를 통해 경흥의 경관을 미리 접했기 때문에 경흥에 도착한 소감을 반가운 사람을 만난 것처럼 애정 어린 눈길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동해에게 있어서 관북 지역은 이미 낯설거나 이질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과 현장의 구체적인 실상을 체험한 경우의 인식이 충돌한다는 것은 기록과 저술의 창출을 유도한다. 실제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는 북관 지역의 개발 및 인구증가와 더불어 이 지역에서 지방관을 역임하거나 유배생활을 한 문인들에 의해 지역의 사정을 보여주는 서적이 많이 저술·보급되었으며, 이로 인해 북방영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함경도를 이역시하는 분위기가 많이 해소되었다.³⁶⁾ 그러나 한편 관북 지역을 직접 체험한 이들 중에는 이 지역을 낭만과 유희의 공간으로 간주하고 지역민을 타자로 인식하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하기도 하였다.³⁷⁾

북평사의 신분으로 관북 지역을 기행한 동해는 병마절도사를 보좌하는 일반적인 임무 외에도 개시 감독 및 교양관을 겸하여 상업의 유통을 살피고, 지역 유생의 교육과 文武科의 試材 및 과거를 주관하였기 때문

36)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2000, pp.118-129. 참조. 이 책의 5. 함경도 소개서의 증가 부분에 조선후기 함경도 지역에 대한 기록과 저술 현황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37) 장유승, 「조선 후기 변경 지역 인식의 변모양상」, 『漢文學報』 第20輯, 우리한문학회, 2009, pp.190-196. 참조.

에 관북 지역의 전체적인 실상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체험은 동해로 하여금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을 떠나서 직접 체험한 관북 지역의 실상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였고, 그 결과 여러 시문들을 정리하여 『동해북유록』을 저술하게 된 것이다.

『동해공유고』에 남아있는 「東海北遊錄六編各序 并槩錄詩文」이라는 제목을 통해 본다면 『동해북유록』은 원래 6편으로 엮은 것으로 추정된다. 각각의 편마다 서문을 달고 시문들을 개괄적으로 기록한 것인데, 『동해공유고』에는 그 시문들이 여러 책에 분산되어 있어 해당 작품을 선별하기에 다소 번잡하다.³⁸⁾ 해당 시문들의 내용은 산천지리, 풍속, 인물, 교육, 과거, 군사, 무역, 상업, 租稅, 邊禁 및 錢禁의 禁制 등을 포함하고 있어 관북 지역의 전체적인 실상을 파악할 수가 있다.

본 장에서는 6편의 서문들을 검토하여 조선후기 관북 지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동해북유록』의 저술이 갖는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해북유록』은 무엇인가? 예원이 유람을 기록한 것이다. ‘동해’는 무엇인가? 남서북동의 바다는 모두 조망하여 얻는 것이 있으나 그 얻는 것 중에서 동해가 최고였기 때문에 굳이 동해를 명칭으로 삼았다. ‘북유’는 무엇인가? 마운령과 마천령 두 고개를 넘어 수 천리 동쪽으로 가다가 서수라에서 배를 타고 먼저 두만강을 따라 연지봉에 이르러 돌아보니 백두산이 도리어 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북유’라 하였다. ‘록’은 무엇인가? 사마천이 ‘실록’이라 하였기 때문에 역시 ‘록’이라 하였다. 그래서 『동해북유록』 한 본은 높은 산과 큰 바다 위에 둔다.³⁹⁾

38)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한시는 대략 52題 62首(강원도 지역 5題 6首 포함), 산문은 서문과 편지 등을 포함하여 대략 47편이 해당된다. 한시는 시체별로 분류하면 1책에 七律 10題 10首, 2책에 七絶 34題 44首, 3책에 五律 4題 4首, 五絶 3題 3首, 8책에 잡체시(보답시) 1題 1首가 실려 있다. 산문은 8·9 책에 실려 있다.

39) 『유고』 9책, 「東海北遊錄六編各序 并槩錄詩文(庚午杪秋行 辛未季春還)」 其一, “東海北遊錄何也 藝垣所記遊也 東海何也 南西北東海 皆放眺有得焉者 而其有得焉者 東海爲最 故強以東海爲其稱謂也 北遊何也 踰摩雲天二嶺數千里

이 글은 첫 번째 서문의 전문으로, 『동해북유록』의 저자와 저서의 명칭 이유 및 노정을 밝히고 있다. 노정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노정을 알기에는 충분하다.⁴⁰⁾ 한편 연지봉에 이르러 백두산을 돌아봤다고 하였는데, 실제 동해는 백두산 정상에는 오르지 못했다. 이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윗글에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에서 동해의 저술태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다. 劉向은 司馬遷이 지은 『史記』를 평하여 실록한 것이라 하였는데, 동해는 이를 염두하여 자신도 사실을 기록하였다는 의미에서 『동해북유록』에 ‘錄’자를 붙인 것이다. 그래서 「太史公自序」의 끝 부분에 나오는 “정본을 명산에 소장하고, 부분은 서울에 두어 후세의 성인·군자를 기다린다.[藏之名山 副在京師 俟後世聖人君子]”를 모의하여 “『동해북유록』 한 본은 높은 산과 큰 바다 위에 둔다.”고 서술한 것이다. 이러한 동해의 저술태도는 두 번째 서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동해북유록』은 어떻게 해서 지어졌는가? 동해가 관북을 유람하고 지었다. ‘지었다’라고 한 것은 ‘술’이 아니다. ‘술’도 진실로 어려운데, 하물며 ‘작’은 말할 것도 없다. ‘작’이라는 것은 『예기』·『악기』·『시경』·『서경』과 같은 종류이니, 이러한 것들을 ‘작’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한 모퉁이의 산천·백성·경물·선비·무사에 대한 것들을 두루 유람한 것에 나아간 것이다. 어찌 이다지도 보잘 것 없단 말인가. 무릇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루니, 하늘은 그보다

東 浮西水羅 先循豆滿江 到燕脂峰回囑 白頭山反在南 故曰北遊也 錄何也 司馬遷曰 實錄也 故亦曰錄 然錄一本在高山大海上”.

- 40) 서문에 기술된 간략한 노정을 바탕으로 『동해북유록』의 해당 시문들 검토하면 노정을 구체화 시킬 수가 있다. 금강산을 거쳤으니 강원도 회령을 경유하여 남관의 관문인 철령을 넘어, 함경남도 고산-안변을 경유하고, 이후 해안선을 따라 원산-덕원-문천-영흥(현 금야)-정평-함흥-홍원-북청-이성(현 리원)-마운령-단천을 경유하였다. 그리고 북관의 관문인 마천령을 넘어, 함경북도 성진(현 김책)-길주-명천·칠보산-경성-부령-서수라(현 나선직할시)를 경유했다. 이후 서수라에서 배를 타고 두만강을 따라 경흥(현 은덕)-경원(현 새별)-온성-종성-회령-무산을 경유했다.

큰 것은 없지만 밝은 것이 쌓인 것이다. 공자가 뗏목을 타고 바다를 향해하고자 했어도 이곳엔 이르지 못했고, 우임금의 치적 역시 이곳에 미치지 못했다. 하물며 한 지방의 선비로 먼지 구덩이 속에 국한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우임금이나 공자도 할 수 없었던 것이지만 알지 못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옛날의 외사는 편협하고 또 전하는 것이 없었으니, 『직방외기』와 『산해경』은 허황한 게 과반이다. 또 속신씨가 소와 말이 서남쪽으로 향하여 잠자는 것을 삼년이나 보고서야 중원에 이르렀다.⁴¹⁾ 중원 사람들이 북두 아래에 이를 수 없었던 것도 역시 미루어 알 수가 있다. 한유가 부상에 다다랐다는 것은 다만 과장해서 말한 것뿐이니,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한들 어찌 증명하겠는가? 증명하든 증명하지 못하든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람과 구름[文:필자주]을 엮어 만들어 산천[道:필자주]을 조화시키는 것은 애당초 유력에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었다.⁴²⁾

이 글은 두 번째 서문의 전문으로, 동해 자신의 『동해북유록』에 대한 저술태도가 『論語』의 「述而」篇에 나오는 공자의 “述而不作”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동해는 자신이 지은 『동해북유록』을 ‘창작’도 아니고 ‘전술’도 아닌, 지역의 사정을 ‘기록’한 소소한 것이라는 말로 겸양하였다. 그리고 그 소소한 기록에 “무릇 작은 것이 쌓여 큰 것을 이루니, 하늘은 그보다 큰 것은 없지만 밝은 것이 쌓인 것이다.”라는 말로

41) 韓致瀾, 『海東繹史』 제60권, 「肅愼氏考」, “쑤나라 武帝 元康 초에 다시 와서 공물을 바쳤다. 東晉의 元帝가 진나라를 중흥시키자 또다시 江左에 와서 석노를 공물로 바쳤다. 成帝 때에 이르러서는 石季龍에게 通好하여 조공하였는데, 4년 만에야 도달하였다. 석계룡이 사신에게 그 까닭을 묻자, 대답하기를, ‘소와 말이 항시 서남쪽으로 향하여 잠자는 것을 3년 동안이나 보고서 大國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42) 『유고』 9책, 「東海北遊錄六編各序 并樂錄詩文(庚午杪秋行 辛未季春還)」 其二, “東海北遊錄何爲而作也 東海北遊而作也 作者非述也 述固難矣 況乎作之乎 作之事禮樂詩書之族也 不此之作 而但就其遊歷一隅之山川民物儒武 何其小小也 夫小之積爲大 天莫大矣 而昭昭之積也 且孔桴未到于是 禹積亦未揜于是 況一曲之士局於塵寰裡者能乎 禹孔之所未能 不可無識 古者外史狹且無傳職方外紀山海經 誕者過半 且肅愼氏候牛馬向西南眠三年 而至中州 中州之人不能至北斗下 亦可推知 韓愈略扶桑 是直夸道耳 使無作也 奚微乎 微不微在人矣 然締構風雲變諧川嶽 未始不資乎遊歷也歟”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천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래서 우임금의 치적이나 공자의 교화도 미치지 못했던 지역을 자신이 유력하여 기록한 것은, 蘇軾이 「潮州韓文公廟碑」에서 평한 韓愈의 공적처럼 그 지역 경물을 文으로 형상화하여 천지자연의 道를 조화시킨 것이라고 자부하였다.

이상 살펴본 첫 번째와 두 번째 서문을 통해서 본다면 결국, 동해의 『동해북유록』은 공자의 ‘述而不作’과 사마천의 ‘實錄’이라는 저술태도를 전범으로 삼아, 관북 지역의 실상을 文으로 형상화하여 천지자연의 道를 조화시킨 것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다. 이것은 또한 선행연구자들이 거론한 “秦漢古文을 전범으로 삼아 載道論的 문학관을 추구하였다.”라는 동해의 문학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⁴³⁾

동해의 재도론적 문학관을 바탕으로 저술된 『동해북유록』의 효용성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 동해는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그 효용성을 제시하였다. 우선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효용성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동해객은 천지의 동쪽 구석에서 태어났다. 독서는 만 번에 이를 수가 없었고, 시문을 저술한 것도 만 권에 이를 수 없었고, 수양한 것도 옛 현철에 이를 수가 없었으며, 산수를 유람한 것도 역시 사방팔방까지 이를 수는 없었다.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여 말하기를 “내 인생 참으로 가엽구나.”라 했다. 비록 그러하나 만약 숙이고 맹진하면 아마도 허물은 적어질 것이고, 퇴연히 자신의 본분을 지키면 아마도 욕되진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산천을 훤히 날아다녔으니, 산천이 비록 연뿌리 구멍과 같을지라도 또한 마음에 맞기만 했다. 진실로 마음에 맞을 수 있다면 또한 내 뜻이 펼쳐질 뿐이니, 어찌 귀천과 영욕에 마음 쓰겠는가. 시문 같은 것은 손가는 대로 써서 산만하여, 아마도 벽을 더럽히고 배나무를 허비한 것이니, 안목을 갖춘 자의 웃음거리에 꼭 알맞을 것이다. 듣고 본 것을 읊고 쓴 나머지인데, 냄새를 뒤쫓는 사람들이 가끔씩 출간하거나 베껴서 두니, 이것은 다만 오대의 연석이어서, 잡아 보기엔 당치도 않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대로 기

43) 동해의 문학관에 대해서는 윤지훈, 앞의 논문, pp.17-26.을 참조하기 바람.

록해서 둔 이유는 독서하는 여가에 와유의 자료로 갖추려고 할 따름이다.⁴⁴⁾

이 글은 네 번째 서문의 전문이다. 동해는 자신의 학문·저술·修己·산수유람에 있어서의 한계를 드러내어 아쉬워하면서, 安分과 맹진을 기약하고 있다. 또한 귀천과 영욕에 구애받지 않고 기행하였던 산천이 마음에 흡족하여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었다고 술회하였다. 이렇게 해서 써진 『동해북유록』을 동해 자신은 ‘梧臺의 燕石’⁴⁵⁾이라 하여 가치가 없는 것으로 겸양하였으나 냄새를 뒤쫓는[逐臭]⁴⁶⁾ 즉, 특이한 것을 좋아하는 당대의 사람들이 출판하거나 등사할 정도라고 하였다. 이것은 앞서 거론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걸쳐 관북 지역에 대한 당대의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동해의 『동해북유록』도 관심을 받고 인기를 누렸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해에게 있어 『동해북유록』의 개인적 효용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윗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것처럼 ‘臥遊의 자료’로 삼는다는 것이다.

문기를, “그렇다면 『동해록』이 어찌 썩어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였다.

-
- 44) 『유고』 9책, 「東海北遊錄六編各序 并槩錄詩文(庚午杪秋行 辛未季春還)」 其四, “東海客生於天地之東隅 讀書不能至萬番 著詩文不能至萬牘 修己不能至古賢哲 遊山水亦不能至四表八極 喟然發嘆曰 吾生也 可哀 雖然 若俛焉孟晉 庶乎寡過 退然守己 庶乎無忝 飄然乎域中山川 山川雖似藕孔 亦其適耳 苟能適亦吾之志展耳 奚貴賤榮悴之可嬰哉 至若文字咳唾 隨手而散 恐澆壁而災梨 適足被具眼者之笑 耳目吟詠揮灑之餘 逐臭之人往往刊膽而投之 是直梧臺之石也不堪把視 然所茲謾錄而置之 以備臥遊之資於讀書之暇爾”
- 45) 梧臺의 燕石 : 『韓非子』에 “宋 나라의 어리석은 사람이 梧臺 곁에서 燕石을 주워 보관하고는 큰 보배를 얻었다고 하였다.” 하였는데, 연석은 燕山에서 나는 옥과 비슷하나 옥이 아닌 돌이다. 자신의 시문을 가치 없는 것으로 겸양한 것이다.
- 46) 逐臭(축취) : 『呂氏春秋·遇會』의 “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친척이며 형제·아내·친구들이 아무도 그와 함께 지내려 하는 자가 없으므로 스스로 고민한 나머지 바닷가로 나가 혼자 살았다. 그런데 바닷가 사람 중에 그 냄새를 좋아하는 자가 있어 밤낮으로 그를 따라다니며 떠나지를 못했다.” 한 데서 나온 것이다.

대답하기를, “이 『동해록』은 쇠조각과 부스러진 깃털과 같은 허섭스레기를 기록한 것일 뿐이니, 혹시나 썩어 없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스스로 있을 곳에 있겠지만, 어찌 이 『동해록』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기에 족하겠는가. 그러나 소자침은 두 발을 돌만한 곳 이외에는 모두 무용한 땅이라고 말했으니, 또한 이 『동해록』을 폐기할 수는 없고, 신발 옆의 땅으로 삼아도 될 것이다. 나무를 포개어 백 척의 긴 사다리를 만들어도 조망을 트고 가슴을 활짝 열어젖히려면, 또한 편목으로 계단을 내야 한다. 이 『동해록』이 비록 유용한 물건은 될 수가 없을지라도 어찌 편목이 될 수 없겠는가.⁴⁷⁾

이 글은 다섯 번째 서문의 마지막 부분이다. 동해는 앞서 인용한 글에서 『동해북유록』을 ‘오대의 연석’이라 하여 가치가 없는 것으로 겸양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더 나아가 ‘쇠조각과 부스러진 깃털과 같은 허섭스레기를 기록한 것’이라 하여 최상의 겸양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동해는 『동해북유록』의 사회적 효용성을 ‘긴 사다리의 계단’에 비유하였다. 즉, 확 트인 조망을 통해 가슴을 상쾌하게 하려면 긴 사다리가 있어야 하는데, 사다리에 계단이 없으면 오를 수가 없으니, 자신의 저술은 사다리의 계단 정도의 역할은 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이 저술한 『동해북유록』에 적어도 관북 지역에 대한 소개서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효용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동해는 제도론적 문학관을 바탕으로 『동해북유록』을 저술하여, 개인적으로는 ‘와유의 자료’로 삼고 사회적으로는 관북 지역의 소개서나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되기를 원했지만, 그의 기행 자체는 개인적인 유람이 아니라 북평사라는 공적인 신분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관북 지역의 기행 자체뿐만 아니라 『동해북유록』 또한 단순하게 특이한 취향을 지닌 사람들의 눈요깃거리로 전락될 것을 우려하여 한 편의 서

47) 『유고』 9책, 「東北海遊錄六編各序 并槩錄詩文(庚午杪秋行 辛未季春還)」 其五, “……曰 然則東海錄其將不朽矣乎 曰 是錄錄其零礦碎羽耳 儻能不朽矣乎 自有所在 奚是錄之足云爾 然蘇子瞻云 容兩足之外 皆爲無用之地 亦不可廢是錄 亦可爲屨傍之地 且累木爲百尺長梯 敞眺望而拓心胸 亦階于片木矣 是錄縱不得爲有用物 其不能爲片木矣乎”

문을 추가한다.

동해는 관북으로 벼슬살이 가는 것이 평소의 뜻이었다. 무사의 고과를 처음으로 시험 쳤고, 유생을 교육했고, 개시를 감독했으며, 백성을 살폈으니, 이러한 직책은 공적인 것이었다. 오직 하나 백두산만은 특별하게 사사롭게 했을 뿐이었다. 사사롭게 했던 마음은 평생토록 가슴속에 수십 년간 붙어있었다. 관북으로 들어서자 위의 몇 가지들은 대략적으로 그 뜻에 맞았고 대략적으로 그 직책을 수행하였다. 이것이 공적으로 이룬 것이었고, 다만 사사로이 했던 백두산만은 이를 수가 없었다. 이는 늦게 도착했고 눈으로 길이 막혔기 때문이었다. 이 또한 낮은 벼슬에 얽매어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만약 위포의 선비 때라면 자유롭게 지팡이 짚고 유람했을 것이다. (中略) 돌아올 때에 미쳐서는 이따금 수레를 막고 만류하였으니, 산기슭에서부터 전송하는 사람들이 많이는 열·백·천 사람에 이르렀고, 멀리 오·육·칠백 리에 이르렀다. 심한 자는 이별의 정서에 옷깃을 적시니, 마치 사제와 장졸이 평소부터 그래왔던 것 같았다. 이것으로 내가 감히 공정한 마음에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아닌지 혹시라도 살펴 알 것이다. 이것은 진실로 북방의 풍속이 돈박하고 독실하며 악착스럽지 않아서 그러했을 뿐이다. 오직 산신령이 내가 그 정영을 발라내어 사사로이해서 그 뜻을 충족시키려 한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봉우리 정상에 발로 밟아 오르지 못하게 한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사사로이 했던 마음에 연좌되어 스스로 명산에서 막힌 것이다. 혹시라도 자기의 사심을 굳건하게 제거하고 공정한 눈으로 봤다면 산신령이 그 뜻을 이루도록 해주었을까? 고인이 말하기를, “뜻이 있는 자는 끝내는 이룬다.”고 하였다.⁴⁸⁾

48) 『유고』 9책, 「東海北遊錄六編各序 并槩錄詩文(庚午杪秋行 辛未季春還)」其六, “東海宦遊于北素志也 而朞試武士課董儒生也 監互市也 覽民物也 是職也 公也 惟一白頭山特其私耳 私之之心平生橫着胸中數十年 及入北 上數者粗副其志 粗稱其職 是於公而遂矣 獨其所私之白頭山未得遂焉 是由晚至而爲雪之厄也 是亦由薄宦之絆人未能 如韋布時自由其遊筇也……及歸往往遮車而留之 自崖送之者多至十百千人 遠至五六七百里 甚者離緒霑襟 若師弟將卒之有素然 是儻諒余之不敢懈乎公心歟否 是誠北方之俗敦樸篤實不齷齪而然耳 惟山靈無乃慮我刻剔其精英以自私而充其志 故不使之足躡上上峰也 若爾則是坐吾私之之心而自阻乎名山也 儻能剋去己私以公眼聘之 則岳靈其將使之遂其志也乎 古人云 有志者竟成”.

이 글은 마지막 서문의 일부분이다. 동해가 개인적으로 원했던 백두산 등반의 실패에는 북평사라는 낮은 신분과 촉박한 일정 및 악천후 등의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적인 신분으로서 사적인 욕망을 지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평사의 공적인 직무에 대해서는 공정한 마음을 견지하였고, 그 결과 직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는 관북의 지역민들이 동해를 평상시 모셨던 스승과 장수를 이별하는 것처럼 사모의 정을 표출할 정도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동해는 이와 같은 성과의 요인을 “돈박하고 독실하며 악착스럽지 않은 북방의 풍속”으로 돌리면서 관북 지역과 그 지역민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동해의 인식은 당대에 있어 관북 지역을 이역시하고 그 지역민을 타자로 인식하는 사회의 일반적인 경향과는 확연하게 다른 것이다. 따라서 관북 지역에 대해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지녔거나 특이한 것을 좇는 사람들이 동해의 『동해북유록』을 접했을 때 관북 지역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관북 지역의 실상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 관북 지역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동해가 저술한 『동해북유록』이 갖는 의의라 하겠다.

Ⅲ. 관북 기행의 시세계

1. 가업의 계승과 왕실 사적의 찬양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해는 북평사에 임명된 것을 ‘북유의 세가’인 가문의 이력을 통해 가업으로서의 ‘주관’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동해의 관북 기행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보이는 것은 북평사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견지하면서 선조들의 발자취를 확인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시문을 선조와 비교하는 등의 내용이다.

四世三來北評事 사대에 걸쳐 북평사로 세 번 왔으니,
 百年恩渥海山知 백년의 두터운 은혜는 바다와 산도 아네.
 戎垣虎略慚無補 호랑이 같은 절도사의 전략엔 도와줄 것 없어 부끄러워,
 謾把雲烟知舊詩 부질없이 풍경만 부여잡고 옛 시를 떠올리네.⁴⁹⁾

3구의 ‘戎垣’은 대장의 자리로서, 여기서는 兵馬節度使를 가리킨다. 병마절도사의 本營은 함경남도 북청과 함경북도 경성에 각각 설치되었다. 이 시는 함경북도 경성의 평사관에서 지은 것이다. 1구에서는 4대에 걸쳐 증조부인 조최수와 생조부인 조익명, 그리고 자신을 포함해 북평사로 부임한 가문의 이력을 서술하고, 2구에서는 이를 임금의 은혜로 여기면서 자부심을 표출하고 있다. 3·4구에서는 절도사의 뛰어난 능력으로 본인은 할 일이 없어, 경성의 경관을 구경하며 선조들이 남긴 시를 떠올린다고 하였지만, 이는 북평사로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책임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曾考銜綸斗南北 증조부 왕명 받들고 남북으로 다니실 때,
 一莽行路九千強 일년에 구천 여리의 노정을 힘써 다니셨지.
 如今敢道驅馳遠 지금 내가 감히 멀리 치달린다고 말하지만,
 只愧吾軍不足張 내 시문을 자랑하기엔 부족한 것이 부끄럽네.⁵⁰⁾

이 시는 동해가 西水羅⁵¹⁾에 도착해서 지은 시이다. 1·2구는 동해의 증조부인 조최수가 숙종 말년에 영남에 제수되었다가 다시 북평사가 되어 관북 지역을 순시하며 서수라에 도착했던 일을 서술하였다. 3·4구에서는 韓愈의 「醉贈張祕書」에서 “아매는 글자를 모르지만, 팔분서를 제법 쓴다. 시가 이루어져 그에게 쓰게 하니, 나의 군대를 자랑할 만하여

49) 『유고』 2책, 「題評事館(其一)」.

50) 『유고』 2책, 「題西水羅館(其二)」.

51) 西水羅 : 함북 慶興郡 蘆西面(현 나진선봉시 서수라리)에 있는 항구로 豆滿江 어귀의 남서쪽에 있다.

라.[阿買不識字 頗知書八分 詩成使之寫 亦足張吾軍]”라는 표현을 차용하였는데, 이 표현은 글을 짓고 써서 자기 쪽의 聲勢를 떨친다는 뜻이다. 따라서 3·4구는 동해 스스로 북평사로 부임하여 관복을 기행하면서 지은 시가 증조부의 시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관북지역은 조선왕조를 창건한 태조와 그 선조들이 활동한 주무대였기 때문에, 周나라와 漢나라 건국의 발상지로 비유되어 ‘漆沮’와 ‘豐沛’의 고향으로 지칭되었다. 태조의 조상들은 이 지역에서 여러 차례 거처를 옮겼고, 두만강가에 거주한 적도 있었으므로 그들의 행적과 관련된 유적이 각지에 있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함흥과 영흥에 있는 두 本宮과 안변의 석왕사 등이다.⁵²⁾ 따라서 동해도 이 지역을 기행하면서 왕실의 업적과 사적을 찬양하는 시를 지었는데, 본고에서는 그 대략만 열거하도록 하겠다.

咸興은 태조가 왕이 되기 전에 살던 곳으로, 정종에게 양위한 후 이곳에서 살았다. 동해는 함흥에서 “백성의 즐거움 변화하여 열성조 노래하니, 한나라 때의 풍패도 이처럼 넉넉하진 않았으리.[民樂繁華歌聖祖, 漢時豐沛未爲優]”⁵³⁾라고 하였다.

永興은 태조의 아버지 桓祖와 조부 度祖가 거주하였고, 태조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며, 태조의 胎를 묻은 濬源殿이 있는 곳이다. 동해는 영흥에서 “산하를 한번 쳐다보니 희색이 도는데, 지금도 제왕의 기운이 하늘 가득 흐르네.[一望山河生喜色, 至今龍氣滿天流]”⁵⁴⁾라고 읊었다.

慶興은 태조의 고조인 穆祖와 증조인 翼祖가 거주하던 곳이다. 목조가 德源(함경남도 원산과 문천 사이에 위치)에서 경흥의 幹東으로 옮겨 살았는데, 익조가 여진족의 기습을 피하여 孫夫人과 함께 말을 타고 바닷가에 이르러 赤島로 피신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덕원으로 옮겨 살았다.⁵⁵⁾ 동해는 西水羅에서 서수라의 경관이 안면도와 부산보다 낫다고 하

52) 강석화, 앞의 책, pp.107-117. 참조.

53) 『유고』 1책, 「題咸興樂民樓(附萬歲橋咏)」의 尾聯, p.98.

54) 『유고』 2책, 「題永興客舍(雙城館)」의 3·4구, p.94.

면서, “익조께서 당시 아침에 말 달리셨는데, 지금도 아름다운 기운이 쌍만을 두르네.[聖祖當時朝走馬, 至今佳氣繞雙灣]⁵⁶⁾”라고 하였다.

釋王寺는 安邊의 高山驛(현 강원도 고산군 설봉리)에 있는데, 고려 말이 절 근처의 토굴에서 지내던 無學大師 自超가 태조의 꿈을 해석해 준 곳으로 유명하다. 동해는 석왕사에서 “우리 임금의 아름다운 필묵을 청해서 보는데, 광령 어린 설봉산이 천년 세월 속에 서있네.[請看吾王雲漢字, 光靈鎮嶽立千秋]⁵⁷⁾”라고 하였다.

2. 관북 지역인과의 교류 및 文教 진흥

앞서 북평사가 문무과의 시재 및 과거를 주관하고, 교양관의 임무를 겸하여 관북 지역의 文教를 담당하였음을 언급하였는데, 여기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名姓曾慚草木知	초목조차 내 이름 알까 부끄러워했더니,
北評兵馬孟冬時	초겨울 날 평북도병마사로 왔네.
金剛秋雨移花筆	금강산 가을비는 화필로 옮겨놓고,
肅愜空雲拾楷枝	숙신의 하늘 구름은 화살로 줘네.
及到愁州鳴劍晚	수주에 도착하니 늦도록 검 소리 들리고,
爲緣賢守駐車遲	어진 군수와 인연 맺어 오래도록 수레 멈추네.
布韋靺鞨分庭試	선비와 무사들 뜰을 나누어 과거 보는데,
豆滿江頭謾勒詩	두만강 가엔 가득히 시를 새겨놓았네. ⁵⁸⁾

55) 태조의 고조인 穆祖가 德源(함경남도 원산과 문천 사이에 위치)에서 경흥의 幹東으로 옮겼다. 증조인 翼祖가 여진족의 기습을 피하여 孫夫人과 함께 말을 타고 바닷가에 이르러 赤島로 피신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덕원으로 옮겨 살았다.(『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VI, pp.329-331.)

56) 『유고』 2책, 「題西水羅館(其一)」의 3·4구, p.98,

57) 『유고』 2책, 「題釋王寺映月樓」의 3·4구, p.100,

58) 『유고』 1책, 「題鍾城延賓閣(主倅韓義運)」.

이 시는 종성 연빈각에서 鄉試를 치르는 모습을 읊은 시이다. 종성은 함경북도 북동부에 있는 군으로,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여 중국의 間島 지방과 마주하고 있다. 함련의 ‘肅愼’은 지금의 만주 동북부에 거주했던 민족인데, 여기서는 종성이 위치한 공간적 배경으로 사용되었다. 수련에서 종성에 도착한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고, 함련에서는 관북 기행의 노정에 있어서 금강산을 경유했음을 밝히고 있다. 함련과 경련의 대우가 공교한데, 함련에서는 금강산과 숙신(종성), 가을비와 하늘 구름, 화필과 화살로 대우를 맞추었고, 경련에서는 수주(종성의 옛이름)에 도착한 것과 군수와 인연을 맺은 것, 늦도록 들리는 칼 소리(군사의 훈련)와 오래도록 수레 멈춘 것(군수와와의 수창)으로 대우를 맞췄다. 이는 文·武의 대비를 꾀한 것으로, 이러한 대우의 이유가 미련에서 선비와 무사들이 향시를 보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마지막 구에서는 종성 향시의 폐단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두만강가에 실제로 모범 답안을 적어놓았는지는 지금 확인할 길이 없지만, 적어도 이 시기 종성 향시에 있어서 적지 않은 폐단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또한 이 지역 문·무인들이 관료로 진출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문인들에게 있어서 文教의 진흥을 반증하는 것이다.⁵⁹⁾

59) 한편, 동해는 북평사로서 무사 양성에 있어서도 관심을 기울였다. “일찍이 내가 한림원에서 숙직할 때 몽매간에 ‘바람에 삼만 필 준마가 울어대고, 달빛에 오친 장대의 붉은 깃발 나부끼네.’라고 지은 시가 있었는데, 대개 관북 기행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경오(1810년) 10월에 북도병마평사겸어사로 오산관(회령)에 왔다. 사대부에게 시부를 시험치고 무사를 불러 각각의 기예를 시험 쳤다. 무사들에게 시상하고 음악을 연주하며 음식을 제공한 것은 처음 만든 일이지만, 역시 평사의 직분이었다. 이는 문인을 북돋아 주고 무인을 분발시키는 조정의 정성스런 뜻을 우리러 본받고자 한 것이다. [曾余直翰林院 夢寐間有詩曰 ‘駿馬嘶風三萬匹 紅旗暎月五千竿’ 蓋想北游之因也 今庚午十月 以北道兵馬評事兼御史 來鰲山館 試詩賦士夫 召武士試各藝 施賞以樂侑饋於武 則勗也 而亦評事之職也 是仰体扶文奮武之朝廷誠意也 夫]” (『유고』 8책, 「題會寧滌愁軒」, p.29.)

老人長侍大老人 노인이 대노인을 오래 모시니,
 諸弟諸兒且孝馴 아우들과 아이들도 효성스럽고 순종하네.
 教養十州官謾忝 십주 교양관인 나는 게을러 욕되게 하는데,
 賴君勤實董衿紳 그대가 근실한 덕분에 유생들을 바로잡았네.⁶⁰⁾

이 시는 관북 지역 양사청의 도유사인 吳大良에게 준 시이다. ‘양사청’은 관북 지역에 별도의 자산과 직제를 가지고 설립 운영된 교육기구⁶¹⁾이고, ‘도유사’는 그 기구의 사무를 맡은 장을 말한다. 효성스럽고 순종하는 오대량의 가풍을 기리는 한편, 지역 유생을 가르쳐야 하는 교양관으로서의 임무를 가진 동해 자신을 겸양하면서, 그 덕을 양사청의 도유사에게 돌리고 있다.

이처럼 관북 지역의 문교 진흥에는 학문과 명망을 갖춘 북평사의 역할이 컸는데, 북평사는 경성에 상주하였고, 북평사에게 수학하려는 함경도 유생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어 경성은 함경도의 문화적 중심지가 되었다.⁶²⁾ 이에 대해 동해가 언급한 것을 살펴보고 논의를 이어가겠다.

십주의 선비들이 포대기를 둘러매고 와서 모여들어서는 경전을 들고 심오한 뜻을 묻고, 답안을 제출하고 재주를 겨룬다. 제자의 예절을 차리면서 서생[북평사-필자주]을 보려는 자가 태반은 대문에 있으니 또한 혼한 일이다. 이러한 일은 월나라에 눈이 내리고 촉나라에 해가 뜨는 일보다는 역시 괴이할 것이 없다. 아! 특히 북방의 고도에 있어서만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 남방지역의 학자들은 미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기쁘게도 여기지만 나를 심하게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⁶³⁾

60) 『유고』 2책, 「贈十州都養士廳都有司吳令大良」.

61) 이에 대해서는 강대민, 「조선조 함경도 지방의 양사청에 관한 고찰」(『부대사학』 17, 부산대사학회, 1993.)을 참조하기 바람.

62) 장유승, 「조선 후기 서북 지역 문인 집단의 성격」, 『진단학보』 101, 진단학회, 2006, p.401.

63) 『유고』 8책, 「送兪評事序(甲戌:1814)」, “……十州之士繼至而坩集 執經而問與投券而角藝 執弟子禮 視書生 半在門 亦夥矣 其於越雪蜀日 亦不見怪 嘻獨於

함경도 유생들이 북평사에게 수학하려는 폭발적인 열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동해는 이러한 현상을 관북 지역에서는 이상한 일이 아닌 흔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남쪽 지방의 학자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당시의 관북 지역에서 발생한 文教의 진흥은 동해에게 있어 관북 지역 문인들의 위상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송나라 때 사람들은 남방의 인사들을 경시하였다. 소요부 같은 사람도 또한 두견새가 천진교에서 우는 소리를 듣고 남방의 인사를 걱정거리로 여겼다. 이것은 반산 한 사람을 우려해서 한 말인데, 후인들이 이를 구실로 삼은 것이니, 남방에서 태어난 인사들을 모두 경시하는 것이 가한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북방을 멀다고 여겨 경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송나라에서 북방이 남방을 경시하고 우리나라에서 남방이 북방을 경시하는 것들 모두는 매우 그릇된 것이며, 애들처럼 유치한 견해이다. 하늘이 사람을 낳음에 어찌 이쪽을 인색하게 하고 저쪽을 두텁게 해서 남북이 현격하게 서로 멀어지게 했겠는가? 두 가지 모두는 모순이며 이치에 가깝지 않다. 남방으로 돌아가면 송나라 때의 고사를 인용해서 증명할 것이니, 또한 북방의 학자들을 위로하고자 할 뿐이다.⁶⁴⁾

이 글은 관북 지역의 인사들에게 준 편지이다. 邵堯夫는 송나라의 邵雍(1011-1077, 호 安樂先生, 자 堯夫, 시호 康節)을 말하고, 半山은 王安石(1021-1086, 자 介甫, 호 臨川·半山)을 말한다. 소옹이 남방 태생인 왕안석이 득세하여 천하가 혼란할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고사를 인용하여, 송나라 사람들이 이를 남방 인사들을 경시하는 구실로 삼은 것이라고 동해는 비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방 인사를 경시

北方古道可見此 南方學者 所不能及也 是吾喜而重余之愧也……”

64) 『유고』 9책, 「書贈北方人士」, p.110, “宋之時時人輕南方士 如邵堯夫亦以南士爲憂 聽杜鵑天津發歎 此憂半山一人而發 然後人以是爲口實 然士生於南方者皆可輕之乎 今我那人以北方爲遐遠而輕之者多矣 此北之輕南於宋 南之輕北於吾邦皆甚非矣 亦兒童之見也 天之生人寧蓄此而厚彼以南北懸然相間乎 二者俱矛盾不近理矣 將歸南方引宋事證明之 亦以慰北方學者耳”

하는 실태도 비판하면서, 양자가 모두 그릇된 인식이며 유치한 견해라고 단호하게 비판하였다.

嶺之上	고개 위,
川之濱	강물 가.
寒風拂拂	찬바람 불고,
白雪續續	흰눈 날리네.
漠漠南飯翼	남으로 가는 새는 아득한데,
遲遲北去輪	북으로 가는 수레는 더디네.
遠將百里千里	백리로 천리로 멀리 가면 갈수록,
多謝伎人武人	선비와 무인에게 고맙고도 고맙네. ⁶⁵⁾

이 시는 鬼門關⁶⁶⁾에서 바람과 눈 때문에 체류하다 고을 사람들과 이별하면서 준 증별시이다. 시의 형식은 三四五六言體로 이러한 형식의 시를 層詩 또는 寶塔詩라 하는데, 이는 각 詩體를 조합해 놓은 것으로 작자의 입장에서는 각 체를 두루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해는 노정이 북쪽으로 올라 갈수록 각 고을의 유생과 무인들에게 받는 도움이 점점 더 많아지는 고마움을 강조하고자 점층법을 이용하여 이 시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관북의 생활상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

直北關山四角城	곧장 북관으로 가니 산에 사각의 성 있는데,
河魁星側廻崢嶸	하괴성이 비스듬히 가파른 산을 돌렸네.
旋旗增彩都元帥	광채 빛나는 깃발 아래 도원수가,
睥睨藏鋒十萬兵	창검 찬 십만 병사를 노려보네.
駿馬名姬多勇捷	이름난 기생들도 말 타니 굳세고 민첩하며,

65) 『유고』 8책, 「鬼門關 風雪留 別諸州人 贈三四五六言」.

66) 鬼門關 : 鏡城都護府 明川縣에 있다. 雲加委院 또는 雲委院이라고도 한다. (『연려실기술』 제5권, 世祖朝故事本末, 李施愛의 반란 5월 조 참조.)

耕犁武士是昇平 무사는 쟁기 들고 밭가니 태평성대로다.
 清秋幕府尋常暇 맑은 가을날 막부는 보통 한가한데,
 詩令還成出塞聲 시령은 도리어 출새곡을 지으라하네.⁶⁷⁾

이 시는 북도병마절도사의 본영이 설치된 경성의 모습을 읊은 것이다. 수련은 본영이 설치된 곳의 웅장한 지형적인 경관을 묘사하였고, 함련은 그 본영에서 병마절도사가 군사들을 사열하는 장엄한 모습을 묘사하였다. 경련에서는 기생들도 말을 탈 정도로 경성이 尙武의 고장이라는 것과 청나라와의 실질적인 무력 충돌의 위험성이 줄어든 실상⁶⁸⁾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미련의 「出塞曲」은 唐代 변새시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제목으로, 변새시의 대명사라 할 수가 있다. 동해에게 있어서는 한가한 막부에서 장수들과 詩作을 하면서 「출새곡」으로 시령을 삼는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다가온 듯하다. 동해가 관북 지역, 특히 북관 지역을 기행하면서 남긴 시들 속에 그 흔한 「출새곡」·「入塞曲」 등과 같은 제목의 시가 없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四角雄城地盡頭 사각의 웅장한 성 땅 끝에 있고,
 鰲山都護有高樓 회령도호부엔 높은 누대⁶⁹⁾ 있네.
 街童能解胡奴語 길거리 아이들은 오랑캐 말을 할 줄 알고,
 州校皆穿薊市裘 고을의 향교에선 모두 계주 시장의 갖옷을 입었네.
 金埒跡留千駿馬 금궤 같은 연병장엔 천 마리 말발굽 남아있고,
 畫帳聲聳萬貔貅 그림 과녁엔 용맹한 일만 군사의 활 소리 솟구치네.
 若教御史嚴邊禁 만약 어사가 변금을 엄격하게 했다면,
 東國海蓼賤似扞 동국의 해삼은 파처럼 별 볼일 없었으리.⁷⁰⁾

67) 『유고』 1책, 「題鏡城南樓」.

68) 이에 대해서는 강석화, 앞의 책, pp.31-40.을 참조하기 바람.

69) ‘高樓’는 회령의 衙舍인 척수헌을 말하는 것인지 南樓를 말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70) 『유고』 1책, 「會寧滌愁軒」.

이 시는 회령의 衙廝인 척수현에서 지은 것이다. 수련의 ‘雄城’은 虬下鎮(불하진)이 있는 雲頭城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⁷¹⁾, ‘鰲山’은 회령의 鎮山으로 회령의 옛 이름이기도 하다. 운두성은 또 ‘五國山城’⁷²⁾이라고도 부르는데, 두만강 연안에 있는 성으로 북방 진압의 요충지였다. 수련에서 묘사된 사각의 웅장한 성과 높이 솟은 누대의 공간적 배치가 동해의 호방한 기상을 보여준다.

함련의 ‘薊市’는 薊州의 시장을 말하는데, 계주는 현재 중국의 河北省 天津市 薊縣으로 北京과 인접한 곳이다. 따라서 함련은 회령이 청나라와 국경이 인접해 있어서 아이들조차 만주어를 할 줄 알고, 청나라의 갖옷을 유생들이 모두 입고 있을 정도로 청과의 사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을 표현한 것이다.

경련의 ‘金埒’은 일반적으로 騎射場을 말한다.⁷³⁾ ‘貔貅(비휴)’는 맹수의 이름인데, 여기서는 용맹한 군사를 비유한 것이다. 말발굽 짙혀 있는 연병장과 솟구치는 활 쏘는 소리가 대우를 이루면서 시각적·청각적 이미지의 교차를 통해 훈련하는 군대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미련의 ‘邊禁’은 국경 근처에서 교통·무역 등에 대하여 행해졌던 禁制로, 越境하여 採蓼하거나 수렵하는 행위, 밀무역 행위 등을 금하는 것

71)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VI, 회령도호부, 비고, 진보(p.313.)에 “불하진(虬下鎮) : ……영종(英宗) 7년에는 운두(雲頭) 고성(古城)으로 옮겨 설치하였는데……”를 참고하여 추정하였다.

72) 李裕元(1814-1888)의 『林下筆記』 제11권, 文獻指掌編, 五國城조에 의하면 오국성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회령의 보을하보 서쪽, 두만강 남쪽에 있고, 이곳에 중국 宋나라의 황제 徽宗과 欽宗의 무덤인 皇帝塚이 있다고 한다. 동해 조종진도 「虬下鎮(蓋五國城屬會寧)」과 「皇帝塚」(2책, p.103.)을 지어, 휘종과 흥종이 금나라 군사에게 잡혀서 오국성에 유배되어 죽은 ‘靖康의 변’에 대해 읊었다.

73) 금렬은 金溝와 같은 말로 金錢을 갈아 만든 도량이다. 晉 武帝 때 王濟가 무제의 딸 尚山公主에게 장가들어 극도의 호사를 누렸는데, 땅을 사들여 도량을 만들고 그 안에 금전을 갈아 말을 타고 달리며 활쏘기를 즐겼다 한다.(『晉書』 卷42, 「王濟傳」)

이다. 북평사는 開市御史를 겸했기 때문에 청과의 개시에 대한 감독권이 있었다. 동해는 회령 개시의 私市⁷⁴⁾에서 해삼의 밀매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과 이를 통제할 수 없는 실정⁷⁵⁾을 사실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⁷⁶⁾

塞北兵民搃可憐 북쪽 변방의 군사와 백성들 모두 가련한데,
 淳風一段不行錢 순박한 풍속에 일단의 화폐도 유통되지 않네.
 倉完十萬猶安堵 창고에 십만석이 가득한데도 안도하는 것은,

- 74) 북관개시에서는 公市·私市·馬市 3종류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공시는 조선과 청 관원의 감독 하에 개시에 참가한 청인에게 정해진 물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교역이라고 할 수 없었다. 사시와 마시는 양국의 私商들 사이에 허용된 교역 기회로서, 공시가 끝난 뒤 개설되었다. 청은 원칙적으로 사시를 용인하지 않았지만, 18세기 초부터 청의 많은 사상들이 북관개시에 참여하였으며 조선인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막을 수 없었다. 조선에서는 이 같은 현실을 인정하여 금물 외의 교역을 금하지 않았다. (고승희, 『조선후기 함경도 상업 연구』, 國學資料院, 2003, pp.129-131.)
- 75) 해삼은 대청수출품으로 인기가 높았고, 청과의 무역에 있어서 私賣를 금지하는 조선의 禁物에 포함되는 품목이었다. 그러나 해삼에 대한 인기가 높아져 私市에서의 밀매가 성행하였는데, 해삼의 밀매가가 시가의 10배에 해당할 정도로 양국 상인에게 큰 이익을 주기 때문에 사실상 해삼의 밀매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고승희, 위의 책, pp.172-173.)
- 76) 동해는 「開示」(9책, p.143.)라는 글에서 개시의 폐단에 대해 지적하면서 “마침내 관리·선비·개시에 참여하거나 부역하는 자들을 크게 모아놓고, 누대 아래에서 재계하고 단정하게 앉아 ‘범법자는 참한다.’라는 네 글자를 손수 크게 썼다. 이내 한번 크게 보여주고 깨우치기를, ‘어찌 차마 사람으로서 사람을 죽이겠는가. 어찌 사람으로서 사람을 죽이겠는가. 그러나 개시는 양국의 대사일 따름이고, 어사는 오직 국법이 있음을 알 뿐이다. 너희들이 살고 죽지 않기를 깊이 바란다.’ 하였다. 다시 여타의 일언도 없이 어사는 엄히 고한 것을 거둬 당부하고 일어나니, 안색이 칙칙해짐을 스스로 어찌 할 수가 없었다. 대중이 모두 묵묵히 감히 올려다보지 못하고 머리를 땅에 숙이니, 마치 두려워 떨며 스스로 어쩔 줄 모르는 듯 하였다. [遂大會吏士供市役者 樓下齋沐端坐手大書四字曰 犯法者斬 乃一大示諭之曰 豈忍以人而無人哉 豈忍以人而死人哉 然市兩國大事耳 御史唯知有國 深望而等生而無之死也 更無一言如他 御史複復嚴告者而起 顏色戚戚 有不能自禁者 衆皆默默不敢仰見 俯首至地 若戰恐不自容者然矣]”라고 기술하였다.

賴有三山太守賢 삼산⁷⁷⁾의 태수⁷⁸⁾가 현명하기 때문이네.⁷⁹⁾

2구의 ‘行錢’은 화폐의 유통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시대에는 화폐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해 함경도의 육진과 삼수·갑산, 평안도의 江邊 7읍 등 변지읍의 화폐 사용을 법으로 금하였다.⁸⁰⁾ 18세기 전반부터 북관 지역의 화폐사용 금제 규정에 대한 논란이 빈번하게 제기되는데, 이러한 사정을 이해하기 위해 동해의 글을 인용하겠다.

어떤 이가 묻기를, “관북만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공사가 모두 병폐로 여긴다. 순찰사와 병마절도사 및 여러 읍의 수령들을 대하면 번번이 화폐사용의 금지를 권장하며 ‘관북은 풍속이 순박하여 화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십주의 많은 선비들에게 시제로 삼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였다.

대답하기를, “화폐는 진실로 사용하기에 편리한 재화이다. (中略) 관북에서만 금지한 것은 개시와 접경으로 우리의 사주가 유출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만(평안북도 義州)에서도 사용하고, 청인도 이미 우리가 스스로 주조한 화폐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관북의 십주에서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진실로 부당한 일이다. 그러나 저 깊숙한 북방 사람들의 풍속은 질박하고 도적이 적어서 여행자들은 양식을 지니고 다니지 않아도 먹을 수가 있으니, 순박한 고향이 있는 것은 진실로 행전하지 않는 효과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행전하게 한다면 재화는 뒤섞여 셀 것이고, 반드시 순박한 풍속은 나날이 파헤쳐질 것이며, 반드시 칼과 송곳 같은 작은 이익에 대한 경쟁이 넘쳐나서 맹렬히 사기가 발생할 것이니, 장차 인정이 박한 타도의 풍속과 같아지게 될 것이다.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모두 이해가 있으나, 행한다면 관북 풍속의 원기를 깎아버리는 것이어서 행전의 편리한 사용에 비교한다면 차이는 상당한 것이다. 또한

77) 三山 : 무산의 三山社를 말함. (丁若鏞, 『與猶堂全書』 第六集, 地理集第六卷, 大東水經其二, 滿水二, “豆滿江沿 自茂山三山社而始 茂山三百五十五里 會寧九十六里 鍾城一百十六里 穩城七十一里 慶源一百十五里 慶興九十一里 總八百四十四里 又云自三山社白頭山源出處 三百餘里”)

78) 이 시의 끝에 “太守 柳相默”이라 부기되어 있다.

79) 『유고』 2책, 「題茂山館(其三)」.

80) 고승희, 앞의 책, p.99.

이미 나라에서 금지하는데도 길주와 명천의 사람 중에 화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비비하게 있고, 경성에서도 근래에 몰래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 만약 과연 그렇다면 이는 국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이다. 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어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는 풍속을 깨뜨리는 것이요, 또 하나는 법의 시행이 문란해지는 것이다. 북방 백성들이 곡식을 짊어지고 백목(표백한 무명)을 끊어 베와 말을 저울질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어리석은 자 또한 더불어 알 것이다.” 하였다.⁸¹⁾

화폐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 정부와는 달리 당시 지방관이나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지역사정을 파악한 인사들의 의견은 화폐사용을 허용하자는 것이 지배적이었다.⁸²⁾ 이 글에서 동해는 禁錢의 실효성이 무의미해진 상황 속에서 관북 지역만 화폐유통을 금지한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인식하면서도 관북 지역의 순박한 풍속 유지와 국법의 원활한 시행을 중시하면서 관북 지역의 화폐사용 금제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다소 이중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위의 시에서 동해는 화폐의 유통이 금지된 무산 지역민의 고충을 가련하게 여기면서도 문제 해결을 무산 태수의 행정능력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다.

내가 북도의 여러 고을과 바닷가를 돌아보니 영남과 호남의 폐단보다 심했다. 그 지방 말에 “진상은 껌미로 꽃아하는데 인정엔 바리바리 집이네.”라 했으

81) 『유고』 9책, 「錢禁」, p.146, “或問 關北獨不行錢 公私俱病之 對巡兵使暨諸邑倅輒勸申禁 至以關北淳風不用錢爲題試十州多士抑何如 曰 錢固利用之貨也……獨禁之北關者 以開市接壤恐泄吾私鑄也 然龍灣亦用之 清人已知吾用吾自鑄而北十州獨不得用 誠無謂也 然深北人俗樸質少盜賊 行旅不齎糧亦得食 有淳古風 實由不行錢之效也 使行錢 貨混竅 必日鑿樸俗 必日渝競刀錐之利 而驚發騙詐 將與他道儂薄之風均之矣 其行不行皆有利害 而行之而使斲北俗之元氣 視行錢之利用 相萬焉 且既有邦禁而吉明人用錢者比比有之 鏡城近有潛行者云 使果爾則是國法不行 法不行而烏能爲國乎 故愚所憂者 一敗俗也 一廢法也 非不知北民擔穀斷白木之權布馬 愚者亦與知矣”

82) 고승희, 앞의 책, p.101.

니 매우 탄식할 만하다. 하물며 올해 봄 어전의 청어는 작년만큼 수확이 많지 않고, 관북의 북어도 적게 나왔음에라. 때마침 덕원을 지나다 느낀 게 있어 짧은 시를 쓴다.

「余見北道列邑海津 殆甚於嶺湖以南之弊 諺云 進上申以貫 人情馱以載 甚可噫也 況今春漁箭青魚不多獲如昨年 關北北魚少出 適過德源有感 題小詩」

列箭儒魚青且大 늘어선 어전의 청어 푸르고도 크지만,
元山水市價如無 원산 어시장에선 값어치가 없다네.
近來淡細漁仍少 근래에 청어 어업은 계속해서 줄어들니,
天意應須減海租 응당 어업세를 감하는 것 하늘의 뜻이리라.⁸³⁾

1구의 ‘儒魚’는 청어를 말하는 것으로, 값이 싸고 선비들을 살찌게 하는 생선이란 뜻에서 ‘肥儒魚’라 하였다. 덕원은 함경남도 원산과 문천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인근에 元山浦가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2구의 ‘元山水市’는 원산포의 어시장을 말하는 것이다. 덕원의 원산포는 조선 후기 전국의 대표적인 포구 중의 하나였다. 원산포는 함경도의 북어 집산지로 18세기 전반부 함경도내 상업중심지로 성장하였다.⁸⁴⁾ 그러나 동해가 관북지역을 순회하고 돌아오다 들린 덕원의 원산포의 사정은 좋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께미로 꽃아서 할 정도로 많지는 않은 진상이지만 마음은 짐바리처럼 무겁게 느끼는 지역민들의 한탄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다. 또한 청어의 수확이 줄어들었고, 북어의 집산지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북어의 수확도 줄어들었다. 따라서 4구에서 동해는 어업세를 줄여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동해는 관북 지역의 풍속·개시·변금 및 전금의 금제 등과 같은 생활상의 실상을 현장에서 체험한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하였고, 북평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면하는 고뇌를 솔직하게 토로하였다.

83) 『유고』 2책.

84) 고승희, 앞의 책, pp.73-74.

4. 遠遊를 통한 豪放한 기상의 배양과 표출

순조 10년(1810) 경오 8월 계사, 병조판서 김리도가 북평사로 의망하여 낙점을 받았다. 19일 사은숙배하고, 23일 하직인사를 드리고, 다음날 출발하였다. 예문관 신구 관료들과 증별하는데 느낀 게 있어 한 수를 지었다.

「聖上十年庚午八月癸巳 兵判金履度政首擬北評事受點 十九日肅謝 二十三日下直 翌日發行 翰苑新舊僚贈別 感賦一首」

諸君憐却過摩雲	제군들은 마운령 넘나드는 길 가여워하지만,
不識吾心騁八垠	내 맘이 사망팔방으로 치닫는 걸 모르네.
山海將爲詩句用	산과 바다는 시구로 사용될 것이고,
起看北斗七星文	일어나 보면 북두칠성 무늬 질 테지. ⁸⁵⁾

이 시는 동해가 북평사에 임명되어 예문관 관료들과 송별할 때 지은 것이다. 마운령은 함경남도 이원군과 단천군의 경계에 있는 해발 416m의 고개로, 좁은 해안저지대의 咸鏡公路를 소통시키고 있어서 예로부터 험준한 고개의 악명으로 인식되었다. 이 시에 나타난 관료들의 근심어린 마음은 그러한 인식의 결과이나, 이와는 달리 북평사로 부임하는 동해는 하루빨리 광활한 관북 지역을 치닫고 싶은 호방한 마음가짐과 창작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해는 북평사에 임명된 것을 ‘북유의 세가’인 가문의 이력을 통해 가업으로서의 ‘주관’으로 인식하였고, 동해 자신도 『동해 북유록』 6번째 서문에서 “관북으로 벼슬살이 가는 것이 평소의 뜻이었다. [東海宦遊于北素志也]”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 평소의 뜻이라는 것은 「評事」라는 글에서 말한 “먼 곳을 유람하면서 마음을 확 트이게 한다. [遊遠而敞]”는 것이었다. 여기서 ‘敞’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 시키면 「送兪評事序」에서 말한 ‘敞(通敞)曠(曠濶)’과 ‘快(快闊)活(活潑)’인데, 이러한

85) 『유고』 2책.

정서는 관북 지역의 장엄하고 광활한 경관을 접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으로, 풍격 용어로 대체한다면 ‘豪放’과 통하는 것이다. 결국 동해가 북평사로서 관북을 기행하면서 일차적으로 얻고자 했던 것은 ‘遠遊를 통한 호방한 기상의 배양과 표출’에 있었다.

시에 있어서 풍격으로서의 ‘호방’은 기상이 장대하고 과장기를 느끼게 할 정도로 요점을 두드러지게 드러낸 것을 의미한다.⁸⁶⁾ 또한 호방한 풍격은 기세가 분방한 특색을 지니는데, 이것은 안으로 元氣가 충만해져서 자연의 도를 획득하고, 마음이 득도의 경지에 진입하면 외형은 저절로 분방한 모습을 지니게 되는 것⁸⁷⁾을 의미한다.

直上摩雲嶺上頭 마운령 꼭대기에 곧바로 올라보니,
 傍捫北斗色如球 구슬 같은 북두성이 곁에서 만져질 듯.
 試斟元氣向南注 원기를 따라 남쪽으로 쏟아 붓는다면,
 洋溢金膏三百州 삼백 고을엔 금고가 차서 넘쳐나리.⁸⁸⁾

이 시는 동해가 단천에 도착하고 나서 넘어 왔던 마운령에 대해 읊은 것이다. 앞서 인용한 시에서 관료들이 근심했던 것처럼 마운령을 직접 와서 보니 과연 험준한 고개임을 알았지만, 험난한 노정에 대한 고통이나 처음 접하는 경관의 낯설음을 표출하지는 않고 있다. 도리어 장엄한 경관을 통해 만물의 근원인 힘[元氣]이 충만해짐을 느끼고, 이러한 자연의 원기를 道家의 仙藥이자 자연이 주는 기이한 보물인 ‘金膏’로 만들어진 세상에 퍼뜨리고 싶어 하는 분방한 기세를 표출하고 있다.

幕府秋客鏡裡疑 막부의 가을 길손이 거울 보다 의아해지니,

86) 차주환, 『중국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p.105.

시의 풍격을 이해함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고에서는 ‘敞曠’과 ‘快活’의 정서를 일단 시의 풍격으로서의 ‘호방’과 통하는 것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87) 張少康, 『司空圖及其詩論研究』, 北京:學苑出版社, 2005, p.109.

88) 『유고』 2책, 「題端川館(附摩雲嶺詩)」.

半摧十丈靑霞眉 푸른 노을 같던 열길 눈썹이 반이나 세었네.
 榆雲千里旌旗拂 유관의 구름 속 천리에 깃발 펄럭이는데,
 却勝蘭臺鎖直時 도리어 난대에서 쇠직하던 때보다 낫구나.⁸⁹⁾

이 시는 병마절도사의 本營이 설치된 함경북도 경성의 평사관에서 지은 것이다. 3구의 ‘榆雲’은 ‘榆關’의 구름을 말하는데, ‘유관’은 ‘山海關’의 별칭이며 변새시에 흔히 등장하는 시어로서 일반적으로 북쪽 변방을 가리킨다. 結句의 ‘蘭臺’는 사헌부의 별칭이고, ‘鎖直’은 며칠이고 외출하지 않고 숙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시 전체의 의미는 가을날 북평사로 경성에 도착해 보니 눈썹은 반이나 세었지만, 변방의 장엄한 병영을 순시하는 것이 사헌부에서 며칠이고 틀어박혀서 숙직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다. 김푸르던 열 길의 눈썹이 반이나 하얗게 새버린 자신의 모습을 과장기가 느껴질 정도로 묘사하고 있으면서, 이것에 상관없어 하는 분방한 기세를 통해 마음이 득도의 경지에 진입하면 외형은 저절로 분방한 모습을 지니게 되는 호방한 기상을 표출하고 있다.

摩天更在摩雲上 마운령 위로 다시 마천령 있는데,
 鵬背鰲頭風下颺 봉새 등과 자라 머리에 의지하니 바람은 아래에서 부네.
 叱馭直下百折崖 말 몰아 백번 꺾인 산기슭을 곧장 내달리니,
 不將漢代忠臣讓 한나라 때의 충신들보다 뒤지지 않으리라.⁹⁰⁾

이 시는 함경북도 최남단인 성진(현 김책시)에 도착하여 지은 조일현 시 뒤에, 넘어 왔던 마천령에 대해 읊은 시를 첨부한 것이다. 마천령은 함경남도 단천과 함경북도 김책의 경계에 있는 해발 709m의 고개로,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를 연결하는 통로여서 예로부터 교통상 중요한 고개였다. 동해는 2구에서 蘇軾이 「次韻孫職方蒼梧山」의 합편에서 “멀리 자라 머리에 의탁해 푸른 바다에 구르고, 와서는 봉새의 등에 의지해 푸른

89) 『유고』 2책, 「題評事館(其二)」.

90) 『유고』 2책, 「題城津朝日軒(附摩天嶺詩)」.

하늘을 등지네.[遠託鼈頭轉滄海 來依鵬背負青天]⁹¹⁾라고 한 표현을 차용하여, 마천령이 높아 바람이 고개 아래에서 부는 장엄한 경관을 묘사하였다. 3·4구에서는 장엄한 마천령을 말을 몰며 내리달리는 동해 자신의 분방한 모습을 한나라 때의 충신에 비교하며 호방한 기상을 표출하고 있다.

한편, 장엄한 경관에 감응하여 호방한 기상이 표출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호방한 기상에 의해 경관이 장엄하게 묘사되기도 한다.

大獵邊頭依八陣	변방 끝에서 팔진에 의지해 크게 사냥하는데,
昇平躍馬獻生禽	태평한 날 말 달리며 산채로 잡은 짐승 바치네.
三軍耳目鳴鞭末	삼군의 이목은 울려퍼지는 채찍 끝에 있으니,
直聳男兒奏凱心	개선가를 부르는 남아의 마음 우뚝 솟네. ⁹¹⁾

이 시는 경원의 고이도에서 사냥을 하는 경관을 읊은 것이다. 함경북도 경원(현 새별군)은 온성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위도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두만강을 끼고 중국의 渾春과 마주보고 있는 접경지대이다. 또한 고이도는 경원과 중국의 渾春 사이의 두만강 가운데 위치한 섬으로 朝淸定界碑가 있던 곳이다. 따라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긴장감 속에서 고이도에서의 사냥은 군사훈련의 일종이었다. 그러나 영조대 이후로는 대청위기의식이 완화되면서⁹²⁾ 군사훈련으로서의 의미는 퇴색되는데, 위 시의 1·2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동해는 진을 치고 사냥하는 경관을 웅장하게, 짐승을 포획하여 산채로 바치는 장면을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동해의 호방한 기상은 3·4구에서 사냥이 끝나고 장수가 휘두르는 채찍에 맞춰 사열하는 모습과 개선가를 부르면서 돌아오는 군사들의 용맹한 모습을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다. 동해는 고이도의 사냥이 호쾌하였는지, 「送兪評事序」라는 글에

91) 『유고』 2책, 「題慶源古珽島」.

92) 대청위기의식의 완화에 대해서는 강석화, 앞의 책, p.76.을 참조하기 바람.

서 북평사로 부임하여 고이도에서 사냥하는 것이 돈을 던지며 노는 돈황태수의 잔치와 같은 대궐의 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더 즐겁다⁹³⁾고 기술하기도 하였다.

IV. 결론

본고는 동해 조종진이 북평사의 신분으로 관북 지역을 기행하고 남긴 『동해북유록』을 통해 관북 기행과 『동해북유록』 저술의 의의 및 관북 기행의 시세계를 고찰하였다.

동해는 관북 지역과 깊은 인연이 있는 자신의 가문 이력을 ‘北遊의 世家’라 지칭하고, 북평사라는 직책을 대대로 물려받는 가업으로서의 ‘疇官’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동해는 북평사에 임명된 것을 관직은 낮지만 ‘淸宦’으로 인식하여 명예롭게 여겼고, 遠遊를 통한 호방한 기상의 배양과 표출을 기대하면서 관북 지역을 순회하는 동안 북평사의 임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피력하였다.

북평사로서의 동해는 병마절도사를 보좌하는 일반적인 임무 외에도 개시 감독 및 교양관을 겸하여 상업의 유통을 살피고, 지역 유생의 교육과 文武科의 試材 및 과거를 주관하였기 때문에 관북 지역의 전체적인 실상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체험은 동해로 하여금 단순한 개인적인 경험을 떠나서 직접 체험한 관북 지역의 실상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였고, 그 결과 여러 시문들을 정리하여 『동해북유록』을 저술하였다.

93) 『유고』 8책, 「送俞評事序(甲戌:1814)」, “(前略) 한창 고이도에서 큰 사냥을 할 때면 변방 고을의 도호부사들이 활집과 화살집을 부착하고 길 왼편에 수백승의 수레를 모아놓고 말에 뛰어올라 산 날짐승을 바치고, 낭자의 무리들이 방패 위에서 먹을 갈면 사냥의 시를 지어 바치니, 돈황태수의 돈 던지는 잔치의 즐거움과 비교하면 또 어떠하겠는가?……方其大獵於古珥島也 邊州都護屬橐鞬 路左集車數百乘 躍馬獻生禽 娘子之軍磨墨盾上 供書賦獵之詩 視燉煌太守金錢之會爲樂 復如何哉……”.

한편, 동해는 공자의 ‘述而不作’과 사마천의 ‘實錄’이라는 저술태도를 전범으로 삼아, 관북 지역의 실상을 文으로 형상화하여 천지자연의 道를 조화시킨다는 載道論的 문학관을 바탕으로 『동해북유록』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동해는 자신의 『동해북유록』에 대해 ‘臥遊의 자료’로 삼는다는 개인적인 효용성과 관북 지역에 대한 소개서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효용성을 부여하였다. 이를 통해 동해는 당대에 있어 관북 지역을 이역시하고 그 지역민을 타자로 바라보는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전환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관북 지역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는데, 이러한 점이 『동해북유록』이 지닌 의의라 할 것이다.

동해의 관북 기행시는 첫째로 가업의 계승과 왕실 사적의 찬양, 둘째 관북 지역인과의 교류 및 文教 진흥, 셋째 관북의 생활상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 넷째 遠遊를 통한 豪放한 기상 배양과 표출 등의 면에서 그 시세계의 내용과 문학적 특징을 지닌다. 특히 동해가 자신의 호방한 기상을 한나라 때의 충신과 비교하는 것과 변새시에서 흔히 등장하는 시어로서 ‘榆雲’·‘榆塞’ 등과 같은 용어를 구사했다는 것⁹⁴⁾은 동해의 관북 기행시의 일부분을 어느 정도 변새시의 범주로 포함시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兩漢 시대는 국력이 비교적 강성해져서 변경의 전쟁이 빈번했던 시대로, 당시의 무력을 중시했던 시대 풍조와 匈奴와의 끊임없는 전쟁과 西域을 경영한 성과 등은 漢代의 樂府詩의 제재가 되어 唐代 邊塞詩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조선의 경우, 15세기-16세기에 이르러 唐風과 擬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漢魏와 南北朝, 唐의 변새시들이 큰 영향을 미쳤다.⁹⁵⁾ 동해의 관북 기행시가 지닌 변새시적 요소는 이와 연

94) 동해의 관북 기행시를 살펴보면, ‘榆雲’·‘榆塞’ 이외에도 중국의 지리적 배경인 ‘天山’·‘大漠’ 등과 같이 변새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어들을 구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95) 이에 대해서는 崔庚鎭의 「邊塞詩의 淵源과 發展」(『中國語文論集』 第九輯, 대한중국학회, 1994.)과 具本術의 「李安訥 邊塞詩 研究」(『韓國漢詩研究』 12,

관이 있으나, 한편 변세시에 있어서 흔히 나타나는 樂府古題를 차용하는 경우, 특히 「出塞曲」과 같은 제목은 동해의 관북 기행시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면밀한 고찰이 요구됨으로,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參考 文獻>

- 『晉書』 『燃藜室記述』 『속중실록』 『현종개수실록』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경인문화사, 1978.
柳 僖, 『文通』
李裕元, 『林下筆記』
丁若鏞, 『與猶堂全書』
趙琮鎮, 『東海公遺稿』,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韓致胤, 『海東釋史』
- 강대민, 「조선조 함경도 지방의 양사청에 관한 고찰」, 『부대사학』 17, 부산
대사학회, 1993.
강석화, 『조선후기 함경도와 북방영토의식』, 경세원, 2000.
고승희, 『조선후기 함경도 상업 연구』, 國學資料院, 2003.
具本術, 「李安訥 邊塞詩 研究」, 『韓國漢詩研究』 12, 한국한시학회, 2004.
김근태, 「西陂 柳僖의 생애와 學詩 門路」, 『온지논총』 14집, 온지학회, 2006.
심경호, 「유희의 시문 문집과 그 정신세계」, 『진주유씨 서파유희전서Ⅱ』, 한
국학중앙연구원, 2008.
尹智勳, 「東海 趙琮鎮의 散文에 대한 일고찰」, 성균관대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3.
이 훈, 「東海 趙琮鎮의 금강산 漢詩 연구」, 『江原文化研究』 第28輯, 江原文
化研究所, 2009.
장유승, 「수색 허적의 의고적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8, 태학사, 2003.

한국한시학회, 2004.)를 참조하기 바람.

- 장유승, 「조선 후기 서북 지역 문인 집단의 성격」, 『진단학보』 101, 진단학회, 2006.
- , 「조선 후기 변경 지역 인식의 변모양상」, 『漢文學報』 第20輯, 우리한문학회, 2009.
- 차주환, 『중국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 崔庚鎭, 「邊塞詩의 淵源과 發展」, 『中國語文論集』 第九輯, 대한중국학회, 1994.
- 崔有鎭, 「養氣의 측면에서 본 東海 趙琮鎭의 서법이론과 문학론」, 『漢文古典研究』 第18輯, 韓國漢文古典學會, 2009.
- 張少康, 『司空圖及其詩論研究』, 北京:學苑出版社, 2005.

Abstract

*A Study on Donghae(東海) Jo Jong-jin(趙琮鎭)'s travels in Gwanbuk(關北)
and 『Donghaebukyurok(東海北遊錄)』 / Lee Hoon**

This thesis examined the significance of 『Donghaebukyurok(東海北遊錄)』 and travels in Gwanbuk(關北); and discussed the poetry world of travels in Gwanbuk, through 『Donghaebukyurok』 written by Donghae(東海) Jo Jong-jin(趙琮鎭) after he had traveled as a governor called Bukpyongsa(北評事).

Donghae, in a sense, decided to call his family as one of the political families in Gwanbuk by reason of a close connection between his'n and the local. And he realized the position of Bukpyongsa as a Joogwan(囑官), to be following in his ancestor's footsteps, furthermore, embraced it as Chungwan(淸宦), an honorable duty, even though it was lowly political position. So he expressed a sense of grave responsibility on his mission, traveling over Gwanbuk with expectancy not alone to arise 'broad-minded(豪放)' but also to grow it.

Donghae combined an international trade supervisor inspecting closely distribution of commerce, with an local instructor controlling education for the students of Confucianism, material for poetry, and the state examination, generally, inclusive of an aide of his superior, Byoungmajeoldosa(兵馬節度使). There by, Donghae could experience all of the real state of affairs in Gwanbuk, and record lots of facts in that region. Eventually, these factors were help him to write the 『Donghaebukyurok』.

Donghae's 『Donghaebukyurok』 was created by taking a perspective that every word must contain the teachings of Confucianism(載道論的 文學觀), and by following two attitudes to writing of Confucius(孔子) and Sima Qian(司馬

* Lecturer of Kangwon Univ. / lh8329@hanmail.net

遷): the former was ‘Do not create anything but just write something(述而不作)’, the latter was ‘Write down all of facts just as they are(實錄)’. Donghae put some utilities to his book: one was personal utility, it means that 『Donghaebukyurok』 could be useful as travel materials without first hand experience, the other was social utility, it means that 『Donghaebukyurok』 could be utilized as any reference or guide book of Gwanbuk. That is, it should be the most significance of 『Donghaebukyurok』 that he tried to change some social perceptions which were to keep away from Gwanbuk and to treat the local people were others in those days, and induce to have more realistic point of view for Gwanbuk.

Donghae’s poetry of travels in Gwanbuk has four distinct features : succession of his family occupation and praise for historic spots of royal family, academic exchange and promotion of literature with the people in Gwanbuk, realistic description of actual the local people’s experiences, and, expression and growth of broad-minded by long distance travels.

【Key words】 Gwanbuk(關北), Bukpyongsa(北評事), 『Donghaebukyurok(東海北遊錄)』, every word must contain the teachings of Confucianism(載道論的 文學觀), broad-minded(豪放)

투고일 : 11월 1일, 심사일 : 11월 30일, 게재확정일 : 12월 7일